(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1024 1983년 1월 7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January 7,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JAN 6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 금년 장학의 밤은 2월5일에

# 모국학생 5명에 장학금

## 한인장학재단, 불우학생 1인당 $500씩

오는 2월5일 다운타운 홀리데이·인에서 제3회 「장학의 밤」을 앞둔 캐나다 한인장학재단(이사장 강공선)은 금년도부터 수혜자 대상을 넓혀 모국의 불우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불한다.

제1차로 전남 순천고교의 황정수군등 5명을 선발한 장학재단은 학생1인당 500달러(약30만원)씩 2월말까지 전액 송금한다.

장학재단은 교민들의 추천에 의거, 전남·전북·경북·강원·충남등 5개도에서 각 1개교씩 5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장학생 선정은 각 학교장에 일임했다.

5명의 장학생가운데 강원도 삼척여고의 오미운양은 자기소개글에서 "홀어머니의 눈물겨운 노력밑에 신문배달등을 하면서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글은 제3회 「장학의 밤」에서 소개된다.

장학재단은 내년에는 장학금 기금(현재 약4만달러)을 늘이면서 장학생선발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작년도 「장학의 밤」행사를 통해 1만여달러의 수익금을 올린 장학재단은 금년에도 이정도의 기금이 모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이사장은 5일 "이제는 캐나다의 한인교포자녀뿐만 아니라 유학생, 한국학생등으로 장학금수혜 대상자폭을 넓혔다"면서 "이번에 선발된 한국고등학생들의 자기소개 글을 읽었을 때 모국학생의 장학금지급이 너무 늦은감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금년도에는 예년처럼 캐나다에서 교포자녀 또는 한국유학생을 대상으로 5명을 선정, 1천달러씩 도합 5천달러를 지불할 장학재단은 금년도 장학선발은 8월말까지 늦춰 지원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이사장은 말했다.

현재 한인장학재단은 이사 42명으로부터 갹출되는 1인당 300달러의 찬조금과 매년 「장학의 밤」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학재단은 이외에도 개인명의의 장학금제도가 있어 개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제3회 「장학의 밤」 문의처는 533-7923.

83년도 한국고등학생 장학생5명은 다음과 같다.

◉황정수-전남순천고등학교 1학년(전교석차: 6/751)

◉이영훈-전북장계종합고등학교 2학년(1/123)

◉양원재-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2학년(1/124)

◉오미운-강원도 삼척여자고등학교 1학년(31/362)

◉강호구-충남대전고등학교 1학년(1/721)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 나까소네 수상 방한

## 정상회담차 11,12 양일간

(서울 5일=연합)나까소네·야스히로 일본수상이 전두환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월11일부터 2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청와대대변인이 5일 발표했다. 나까소네수상의 한국방문은 도쿄에서도 동시에 발표됐다.

나까소네수상의 한국방문에는 아베·신따로외상을 포함한 고위관리들이 동행한다.

발표문에 의하면 양국수뇌는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평가하며 한일관계에 관련된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게 된다.

이곳 외교소식통들은 나까소네수상의 방한은 한국의 일본공공차관에 대한 요청과 관련한 양국정부간의 협상이 진전을 본 결과에 크게 기인한다고 분석하면서 나까소네수상의 방한기간중 일본의 대한 차관의 규모및 성격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곳의 외교관측통들은 나까소네씨가 지난 11월26일 수상직을 맡은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는 신임 일본지도층이 한일관계를 중요시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일본에 대해 40억달러의 공공차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81년 8월에 당초 요청한 액수보다는 20억달러나 줄어든 숫자이다.

사상 초유의 정식 한일정상회담이 될 전·나까소네회담을 가능케한 이면에 양국간에 어떠한 종류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거 일본수상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67년과 71년의 박정희대통령의 취임식과 74년의 육여사의 장례식때였다.

전대통령은 나까소네씨가 수상으로 당선된 직후 전화대화를 통해 자신과 나까소네수상과의 조기회담 희망을 표시했다.

(해설 3면에)

## "김대중씨 귀국 어려울듯"

(워싱턴)신병치료를 이유로 필리핀의 형무소에서 석방, 2년반전 가족과 함께 도미, 현재까지 보스톤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의 야당지도자 베니구노·아키노 전상원의원(50)은 미국에 온 자기와 닮은 처지의 김대중씨에 관해 언급, "김대중씨와 만나고 싶다."고 최근 밝혔다.

아끼노씨는 이어 김씨는 미국에서는 효과적인 정치활동이 별로 될 수 없을 것이고, 그의 병이 완쾌되더라도 귀국은 힘들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나는 그에게 회고록집필을 권하고 싶다"고 비관적 견해를 밝혔다.

# 죄수 상호교환 합의

## 트루도, 태국정부와

(방콕)아시아 7개국을 순방중인 트루도 캐나다수상은 첫 기착지인 태국에서 우선 양국의 수감자들을 교환키로 합의했다.

태국에 수감된 수명의 캐나다인은 모두 마약밀매혐의로 억류돼 있으며 캐나다에 수감된 타일랜드인은 1명뿐이다.

4일 방콕에서 11명의 경제인 수행원들과 간담을 마친 트루도수상은 태국에 대한 캐나다의 수출량을 늘릴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트루도수상은 공항에서 프렘·틴술라논다 타이수상의 영접을 받았으며, 방콕시내에서 조그만 캐나다국기를 흔드는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트루도수상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국 순방에 14명의 수행원과 큰아들 사샤(9세)를 대동했다.

◆아시아 7개국순방에 나선 트루도수상은 4일 방콕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프렘·틴수라논다 태국수상에게 태국의 전통적인 인사인 "와이"를 하고 있다.

# "외채 못 갚겠다"

## 제3세계국가 부도선언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의 최후의 심판같은 악몽이 세계금융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무거운 외채에 눌려 짜그러진 한 제3세계국가가 자신의 외채를 갚지 않겠다고 부도를 선언, 이 국가에 돈을 꾸어진 은행중의 하나인 홍콩의 한 은행을 도산으로 몰아넣었다.

제3세계의 최대부채국가인 브라질은 지난주 외국의 한 은행과의 협상에 실패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차관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자체계획을 수립, 세계금융계를 어둡게 만들었다. 이에 앞서 아르헨티나도 지난 11월 이와 유사한 발표를 한바있다.

제3세계의 외채액은 현재 6천2백60억달러로 불과 4년만에 두배로 늘어났다.

개발도상국들은 불경기로 소득이 감소된 반면, 높은 이자율로 이들의 차관 상환액은 점점더 증대되어 갔다.

## 브라질 이어 아르헨티나도

### 세계금융업자 곤경에 빠뜨려

**브라질**:외채액이 무려 890억달러에 달하는 브라질은 82년이 끝나는 지난주 1월과 2월에 갚아야 하는 이자 약10억달러를 상환못하겠다고 선언했다. 70년대에 브라질은 불경기로 주산품인 커피등의 판매량및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서 140억달러라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별 쓸모도 없는" 이타이푸수력발전소 건설등 무모한 산업화계획을 추진했다.

**멕시코**:외채액이 830억달러로 국민1인당 부채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천2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39억달러의 새로운 차관을 협상중에 있는 멕시코는 단기상업차관 200억달러의 상환을 미루려하고 있는 한편 상업차관 50억달러를 새로 얻으려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외채액 360억달러. 이 돈의 대부분이 군부와 개인착복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결론짓고 있다. 한 경제장관은 국영석유회사의 외채액이 60억달러로 증가한것과 관련하여 현사협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아르헨티나정부는 앞으로 6개월내에 갚아야하는 부채 47억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공채등을 발행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볼리비아**:외채액 38억달러. 라틴·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가장 가난한 국가중의 하나인 볼리비아는 현재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여있다. 민주주의 방법으로 새로 당선된 허난·사이레스·쥬아조대통령은 외채에 대한 재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IMF및 외국은행과 회담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바있다.

**폴랜드**:외채액 약240억달러. 2개월전 서방은행들은 폴랜드가 82년도에 상환해야할 20억달러이상을 8년에 걸쳐 상환토록 상환조건을 재조정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 서방은행들은 사적으로 폴랜드가 83년도 상환에 있어서도 82년와 유사한 문제를 예견한다고 평한바있다.

**유고슬라비아**:외채액 180억달러, 유고슬라비아정부는 지난 9월부터 긴급원조를 찾고 있다. 미국행정부는 국제은행들을 중심으로 10억달러의 비상구조차관을 계획하고 있다.

**루마니아**:외채액 100억달러.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가 안고있는 문제는 엉망으로 짜여진 산업화계획과 외채만기일이 80년도 초반으로 대부분 계획되어 있는등 외채상환일정이 엉망으로 되어있는데 기인한다.

볼리비아는 서방은행들과 부채상환 재조정에 합의했다.

**한국**:외채액 390억달러로 개발도상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액수, 한국의 공업화계획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불황속에 성장율이 둔화되었다.

**자이레**외채액 50억달러. 경제를 아주 잘못 운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IMF는 이 거대한 아프리카국가를 여러차례 구해냈으나 지난해에는 모부투·세세·세코대통령정부가 실적목표에 미달했기때문에 9억1천2백만달러의 차관선을 중지했다.(외신에서)

|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 | | |
|---|---|---|---|
| 한인신용조합 | | | |
| 기 간 | 신용조합 | 오투기정기예금 | 시중은행 |
| 30일 | 10.5% | | 9.5% |
| 90일 | 11% | | 10% |
| 180일 | 11% | 10.75% | 10% |
| 365일 | 11% | 10.75% | 10%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 | | |
|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 | | |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 社 告 —

## 구독료 15일부터 월$10

본〈토론토한국일보사〉는 신문제작비및 발송비보충을 위해 구독료를 현재의 연 99달러에서 연 110달러(선불)로 인상합니다.

15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인상으로 월구독료는 종전 월9달러에서 월10달러가 됩니다. 반년 구독료는 55달러(선불)가 됩니다.

구독료인상은 1월중부터 있을 〈주간한국〉을 별도 인쇄하는 것과도 다소 관련이 있으나 주 원인은 15일부터 신문에 적용되는 2종 우편요금이 작년의 대폭적인상에 이어 다시 6%가 오르는 때문입니다.

1월15일까지는 종전요금이 적용됩니다. 독자제위의 이해를 앙망하며 계속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새 구독료 ★

월 $10.00

연간(선불) $110.00($10 할인)

반년(선불) $55.00($5 할인)

—토론토 한국일보사—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마쵸레스토랑
신장개업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STEELS
GORDON BAKER RD.
FINCH
PHARMACY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
□주 소 : 4035 Gordon Baker Rd. (스카브로)
☎ : 498-1300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Toryork Dr.
Weston rd.
Finch ave.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 우편요금 6% 인상

## 해외편지 1월15일부터 64¢
## 국내편지 2월15일부터 32¢

(오타와)2월15일부터 1종 보통 우편요금이 32센트로 6%오른다.

1월15일부터는 또한 미국으로 가는 편지 요금은 37센트로, 한국등 외국으로 가는 편지는 기본요금은 64센트로 오르며 그밖의 우편물요금도 6%씩 오른다.

1월15일부터는 또 봉투크기가 크거나 우편번호가 없는 편지등 규정을 어긴 비지네스우편은 정규 32센트보다 5센트가 많은 37센트 로 오른다.

우편공사의 마이크·램시 대변인은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우편번호제도를 보다 활용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아직도 총 우편물의 15%가 우편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편요금은 작년 1월 17센트에서 30센트로 76% 인상됐었다.

우편공사는 정부의 6~5% 인상 억제방침과 부응한 이번 인상은 크리스마스 직전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었었다고 밝혔다.

## 극단 "얼" 송년잔치
### 신명과 폭소의 연속

캐나다교민사상 최초의 연극단체인 극단 "얼"의 (대표 이장성) 송년잔치가 지난 28일 마초레스토랑에서 거행됐다.

교민언론인들이 초청된 이날 잔치는 다양한 재주를 가진 단원들의 다채로운 장기로서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폭소와 춤으로 엮어졌다.

단원인 이광민·피세영씨의 사회로 토론토·한국일보사장 김명규씨와 민중신문사장 정철기씨의 격려사와 극단대표 이장성씨의 인사말에 이어 기획 임충남씨의 노래, 주역배우 강종회씨의 1인극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토론토·한국일보사장은 "얼은 있으나 예술성이 없다던가 예술성은 있으나 얼이 빠진 극단이 되지 말기"를 당부했고, 극단의 이대표는 극예술을 통해 교민사회의 정서를 회복시켜보겠다고 다짐했다.

한 참석자는 이날 파티에서 "토론토의 신명난 재주꾼들은 다 극단 "얼"에 모인듯하다"고 말했다.

삼우 스튜디오에서 매주 목·일요일 연습을 갖고 있는 극단 "얼"은 오영진작 "맹진사댁 경사"를 창단공연으로 선정했었다.

20여명의 단원을 갖고 있는 극단 "얼"은 계속 새단원들을 모집중에 있다.

## 조상호 올림픽 부회장
### 10일 캐나다 방문

(서울 5일=연합)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조상호부회장은 캐나다스포츠지도자들과 '88 올림픽에 관한 일련의 회담을 갖기 위해 오는 1월10일 캐나다를 방문한다.

SLOOC사무국장직도 겸하고 있는 조부회장은 캐나다에 오기 앞서 미국을 방문한다.

SLOOC대변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부회장은 6일 미국으로 떠나며 미국에 머무는 동안 서울올림픽 중계료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ABC, NBC및 CBC방송국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조부회장은 이외에도 1월14일부터 21일까지 LA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집행위원회와 국내올림픽위원회(NOC)와의 합동회의에 참가, 주안·안토니오·사마렌치 IOC회장및 LA올림픽조직위원회의 피터·V·웨베로스회장과도 만날 계획이다.

## 토론토 범죄율 0.7% 감소
### 성범죄및 강도·절도는 늘어

82년도 한햇동안 메트로·토론토의 범죄는 전반적으로 0.7% 줄었으나 성범죄는 8% 늘었고 은행및 금융기관강도건수는 무려 16% 늘었다.

잭·아크로이드 시경찰국장은 지난 12월15일까지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82년도에는 강도건수가 21% 늘었다고 밝히고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떨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폭력건수가 보다 더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82년도에 메트로·토론토에서 일어난 6건의 살인·성범죄중 3건이 미결상태에 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3건의 살인은 토론토 풋볼팀인 아고넛츠 치어리더인 제니·이스포드(19)양, 베비·시티인 크리스틴·프린스(25)양, 자택에서 살해된 글로리아·게버트(21)양의 케이스이다.

## 연휴맞은 메트로 상가
### 상점도난 주당 250건

메트로·토론토의 상점주들이 년간 샵·리프팅(Shop Lifting) 즉 쇼핑객에 의해 도난당하는 상품의 총액은 4천5백만달러이며 상점주들은 손님을 가장한 도둑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치 않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고 도심지 상점주들의 회합인 다운타운 비지니스·카운슬의 회장이 3일 밝혔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메트로·토론토및 교외지역의 법정은 연례적으로 최고 성행을 이루는 쇼핑객 절도혐의재판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메트로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연휴시즌중 상점절도건수는 평상시보다 66%가 늘어난 1주에 250건수 정도. 평상시는 주에 150건수정도였다.

카운슬 사무국장 빌·맥매너스씨는 상점도난사건중 발각돼서 물건값을 지불하거나 기소돼서 법정으로까지 가는 케이스는 10%도 못되며 더구나 법정으로까지 가는 경우라도 초범일경우는 대부분 기소무효화(Dischange)돼 이런 관대한 처벌로는 상점도난 예방에 큰 도움이 못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브램톤 지방법원의 제랄드·영판사는 132달러어치의 물건을 훔친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인 18세의 여인에 벌로써 72시간의 지역사회봉사업무를 명령했다.

## 온타리오·플레이스 70㎜영화 페스티발

온타리오·플레이스의 트릴리움·라운지에서 있을 페스티발이 2월5일부터 4월3일까지 계속된다.

토론토에서 가장 큰 스크린과 6트랙 음향시설을 자랑하는 온타리오 플레이스는 이 대형영화 상영기간동안 무료로 주차시설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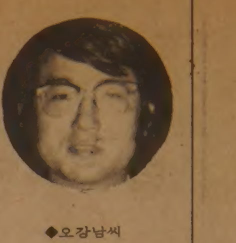
이 기간동안 영화상영시간은 수, 목, 금, 하오7시와 하오9시반등 두번이며, 토·일요일은 하오 1시, 4시, 7시, 9시반등 4번씩이다.

입장료는 어른 $4.00, 청소년 $3.50, 어린이(12세미만) $2.00, 노인 $1.50이다.

온타리오 플레이스는 955 Lakeshore Blvd. W.와 더퍼린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는 965-7711.

◉1월5일~9일 Rocky III
◉1월12일~16일 2001: Aspace Odyssey
◉1월19일~23일 Superman The movie
◉1월26일~30일 Superman II
◉2월2일~6일 Pink Floyd The Wall
◉2월9일~13일 Star Trek II: The Wrath of Khan
◉2월16일~20일과 2월23일~27일 Apocalypse Now
◉3월2일~6일 Tron
◉3월9일~13일 Quest for Fire
◉3월16일~20일 Alien
◉3월23일~27일 The Exorcist
◉3월30일~4월3일 Blade Runner

## 〈속담풀이 시리즈〉 신설
### 종교학박사 오강남씨 컬럼



◆오강남씨

트자이나대학교수인 오강남박사가 앞으로 20여회에 걸쳐 특별컬럼 〈속담풀이 시리즈〉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귀에 익은 한국속담을 골라 그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민생활에 보탬이 될만한 생각들을 붓가는 대로 가볍게 다루어 볼 오박사의 컬럼을 독자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76년도에 이미 본지의 전신인 〈캐너더·뉴스〉의 〈제5계절〉필자로서 본지와 인연을 맺었던 오박사는 이민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자중의 한사람입니다. 외국에 오래 살았으면서도 뛰어난 그의 한국말 문장력 특유의 예리한 관찰은 본지의 신년호 특집 〈한인사회를 진단한다〉의 종교편에서도 잘 나타나 있읍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 종교학과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맥마스터대학에서 종교학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마니토바대, 알버타대를 거쳐 현재 트자이나대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읍니다.

## 꿈보다 해몽

R형,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은 속담전문가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속담을 즐겨 사용하셨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국속담의 대부분은 어머니에게서 들어 배운것들 입니다. "얘야, 섬마가 사람 죽인단다.","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랬다. 잘 생각해서 처리해라"하는 등 무슨 일로 저를 충고하실때나 어떤 사실을 명심시키실때면 거의 예외없이 속담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쓰는 글에 제가 보아도 놀랄정도로 많은 속담이 섞여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이런 어머님의 영향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제 어머님이나 저의 경우만이겠읍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 민중의 체험과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이런 속담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같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공통의 정신적 유산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나 궁금해했던 것은 이런 속담들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읍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속담의 해석학적 문제라고나 할까요? 어머님이 쓰시면 용법이 맞는 것인가? 나는 이 속담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적, 문화적, 문헌학적 배경에 비추어볼때 이런 속담들이 우리에게 줄려고 했던 근본적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하는등의 문제를 좀더 정확히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읍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겐 지금껏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붙들고 씨름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맞을것 같은 문맥에다 이런 속담들을 넣어서 사용해 왔을뿐입니다. 더러는 제대로 이해된 것도 있겠지만 오해된 경우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해와 오해의 범벅이라 할까요.

그러나 위로를 받는 것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상스런 꿈을 꾸고 일어난 아침, 어제 밤에 왜 그런 꿈을 꾸었던가, 그 꿈의 본래적, 역사적, 정신분석학적 의미가 무엇인가하는 것을 알아내려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꿈 자체의 정확한 뜻을 알도리가 없다고 해서 그냥 죽치고 앉아 하루를 공칠것이 아니라, 그 꿈을 나나름대로 의미있게 받아들이므로 그 날 하루를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적극적 태도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전이나 남의 글을 읽을때, 물론 일차적인 일은 그 글들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그런 글들을 통해 나의 삶을 조명해보고, 나의 삶을 더욱 삶답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 아니겠읍니까?

글의 문자적 의미너머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실존적 의미를 패헤어 보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R형, 이제 제 귀에 익숙한 속담들 얼마를 골라서 좀 차근히 음미해보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몽」을 붙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해 볼까 합니다. 역시 이해와 오해의 범벅이겠지만 좀 읽어주시고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모색하려는 우리의 대화가 계속 깊어지게 되길 빕니다.(다음호에 계속)

## 金聖鍾 작
###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42>
### 출발 ㉓
### 미행자 목에 총구 들이대고 옥상으로…

그는 폴크스바겐을 몰고 천천히 시내로 들어갔다. 백미러로 보니 노란색 머스탱이 적당한 간격으로 뒤따라오고있었다.

15분후 그는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CPA여행사에 들어갔다. 미모의 여직원이 그를 맞이했다.

『어서오십시오. 뭘도와드릴까요?』

『내일 오후에 서울에 갈까하는데…』

『몇시비행기로 가실건가요?』

『1시쯤이면 좋겠는데…』

『1시15분에 떠나는 비행기가 있읍니다.』

『네, 좋아요. 일등석으로 한장주시오.』

5분후 그는 여행사를 나왔다. 다시 차를 몰고가면서 백미러로 보니 미행차에는 한놈만 타고있었다.

조금후 그는 다시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갔다. 각종 도색잡지 홍수를 이루는 골목이었다. 그는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도색잡지를 구경하다가 그중 한권을 사들고 골목을 나와 길을 건너갔다. 길을 건너 조금 걸어가다말고 그는 갑자기 뒤돌아섰다. 미행자가 막 길을 건너오다말고 주춤하는 것이 보였다.

창은 호주머니속에서 동전을 꺼내들고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동전을 집어넣고 다이얼을 돌린후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부탁이 있어. 지금바로 내 아파트에 가서 짐을 좀 가져다 줘. 짐은 거실에 있으니까 그것만 들고오면 돼.』

『열쇠는 어디 있읍니까?』

조수가 물었다.

『경비실에 맡겨놨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짐은 로비에 맡겨두게.』

『알겠읍니다.』

朴男 그림

통화를 끝낸 그는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백화점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엘리베이터앞에도 사람들이 몰려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안으로 들어갔다. 미행자는 머뭇거리다가 맨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닿았을때 안에는 그와 미행자 두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미행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미행자는 신음을 토하면서 상체를 웅크렸다.

목덜미를 후려치자 미행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미행자를 엘리베이터밖으로 끌어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선글라스가 벗겨져 짓뭉개졌다.

제법 힘깨나 쓸것처럼 보였지만 그앞에서는 맥도 못추고 있었다. 주머니를 뒤지자 피스톨이 나왔다.

『옥상으로 올라간다.』

상대방의 목덜미에다 총구를 들이대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행자는 완전히 주눅이 들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기어올라갔다.

그는 옥상 난간으로 상대방을 몰고갔다.

『왜 나를 미행했지?』

그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난간 저쪽으로 밀었다. 미행자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렸다.

## 플레이오프 16팀 진출
### 바팔로,LA램스 탈락

선수들의 파업으로 스케줄이 엉망이 된데다 관중까지 줄어 울상이 된 NFL은 지난 2일, 3일을 마지막으로 예선리그를 끝내고 이례적으로 16팀의(예년에 10팀)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뽑아 오는 30일 슈퍼·보울로 풋볼시즌은 막을 내린다.

이미 플레이오프진출이 확정된 미네소타·바이킹은 3일 달라스·카우보이를 31:27로 눌러 플레이오프에서 홈게임의 잇점으로 갖게됐다.

토론토의 풋볼팬들이 기대했던 버팔로·빌스는 런닝백 조·크립스의 활약에도 불구, 뉴잉글랜드·패트리옷에게 30:19로 역전패,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다.

팔호안은 시드넘버로써 순서에 따라 홈게임의 어드벤티지를 갖는다.

예선리그 마지막게임의 전적과 8,9일 플레이오프 1차전 대진표는 다음과 같다.

◆달라스 카우보이키커가 미끄러졌다. 달라스는 미네소타에 31:27로 패했으나 순위에는 변동없다.

### ◆지난주 전적과 플레이오프 대진표

**American Conference**
Cleveland (8) at L.A. Raiders (1)
New England (7) at Miami (2)
New York Jets (6) at Cincinnati (3)
San Diego (5) at Pittsburgh (4)

**National Conference**
Detroit (8) at Washington (1)
Tampa Bay (7) at Dallas (2)
St. Louis (6) at Green Bay (3)
Atlanta (5) at Minnesota (4)

**예선리그 마지막 전적**
N.Y. Giants 26 at Philadelphia 24
Cleveland 21 at Pittsburgh 37
Cincinnati 35 at Houston 27
N.Y. Jets 13 at Kansas City 37
Buffalo 19 at New England 30
Chicago 23 at Tampa Bay 26
St. Louis 0 at Washington 28
Miami 34 at Baltimore 7
L.A. Raiders 41 at San Diego 34
L.A. Rams 21 at San Francisco 20
Denver 11 at Seattle 13
Green Bay 24 at Detroit 27
Atlanta 6 at New Orleans 35
Dallas 31 at Minnesota 27


교회음악봉사자들을 위한

# VOICE WORKSHOP '83

옥인걸 교수

◆약 력
◉ 미국「보스턴」의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으로부터 연주학위(1964년)와 음악석사학위를 받음(1966년).
◉ 1965년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Singing이 주최한 Singer of the Year Competition for New England에서 1등 입상.
◉ 1968년「제네바」국제연주가 콩쿠르에 입상.
◉ 1969년「뉴욕」의 Concert Artist Guild Audition이 주최한 콩쿠르에서 1등 입상을 하여 동협회 주최로「카네기 리사이틀」홀에서「뉴욕」데뷔공연을 가짐.
◉ 현재「토렐」음대 성악과장겸 오페라 과장이며, 1966년부터 전 미국 성악교수협회 이사및 동협회 콩쿠르의 심사위원직을 맡고있음, 미국 저명인사록 "Who's who in the East"(제16판)에 저명음악가로 추천, 기록됨.

금번 저희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옥인걸교수를 초청하여 Voice Workshop(발성강의)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성가대봉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차례대로 배울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년 2회씩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아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인 Lesson도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등록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정의 참가비 있음)

시 일 : 1983년1월21일(금)~22일(토) 저녁7시~10시(6시간)
장 소 : 빌라델비아장로교회
7 Gretha Ave. Tor.
연락처 : 박원조(278-4694) 백효중(274-8503)

빌라델비아장로교회주최

# 한인회장에 이태은씨
## 망년파티에 이대사도 참석

◆이태은 신임한인회장

지난 30일 오타와 샤또로리에호텔에서 망년파티를 겸한 총회를 가졌다.

이날 파티에는 이규현대사부처를 비롯 대사관직원 교민300여명이 모였다. 파티에 앞서 거행된 총회에서는 83년도 오타와한인회를 이끌어갈 회장에 본사 오타와지국장 이태은씨가 선출됐다.

자유당 오타와지구대의 원직을 맡고 있는 이회장은 태권도장을 경영하면서 언론계, 정계에 폭넓은 진출을 하고 있다. 신임한인회총무에는 오타와대학에 기계공학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이규현씨가 선임됐다.

노래자랑등 다채로운순서로 진행된 이날 파티에서는 아프리카 리베리아대사로 영전되어가는 오타와대사관의 이현홍공사의 송별파티도 겸했었다.

## 이현홍 공사 리베리아 대사로

(서울 4일=연합)83년도 첫 해외공관장회의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무부대변인은 5일 이번 공관장회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등 50여개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제3세계에 대한 외교대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외무부고유관리는 덧붙였다.

캐나다에서는 이규현대사가 이회의에 참석한다.

## 해외공관장회의 이규현대사 참석

오타와대사관의 이현홍공사가 부임 2년만에 아프리카 리베리아대사로 영전되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현재 아그레망(외교관의 주재국승인절차)을 기다리고 있는 신임 이대사는 오는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공관장회의에 참석한후 2월초 현지로 부임한다.

이대사는 지난 81년초 오타와대사관에 공사직을 맡은지 2년만에 대사로 승진되었다.

이대사는 57년도 외무부에 발을 딛은 25년경력의 직업외교관이다.

## 코미디영화 투시 7백50만달러수입

(헐리웃-외신)더스틴·호프만이 여장으로 출연한 코미디영화 「투시」가 지난 크리스머스주말에 다른 모든 영화를 누르고 7백50여만달러의 최고수입을 올렸다.

영화 「투시」는 지난 크리스머스주말동안, 전국의 8백84개 극장에서 각각 7천7백48달러의 평균수입을 올렸으며 콜럼비아 영화사가 처음 배급한 이후 10일동안 1천8백10만9천7백41달러의 수입을 거두었다.

**구독 신청은 (416)533·2361**

# 오타와 소식
## 이태은지국장 담당

오타와지역의 교민뉴스는 오타와지국장인 이태은씨가 총괄하고 있읍니다. 오타와및 인근지역의 기사화될 모든 사항은 본사 오타와지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와지국 Mr. Lee, Tae Eun, 1300 Carling Ave. Ottawa Ont. K1Z 7L2
전화: 1-613-722-6133(B)

# E.T.(외계인) 찾는 실험 추진
## 외계음향 탐지컴퓨터 사막에 장치

(스탠포드, 미 캘리포니아주)82년도 히트영화였던 E.T.의 주인공 E.T.를 찾으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Extra Terrestrial 즉 외계인이란 말의 약자인 E.T.는 지능과 감정을 가진 물체가 지구외의 우주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을 보다 실감있게 해준 82년도 영화로 감독인 스피엘버그와 제작진을 돈방석에 앉히게 했고 장난감, 상호등에도 널리 응용됐다.

오는 4월중 미 캘리포니아주의 모·제이브사막에 150만달러를 들여 설치될 냉장고 크기의 실험장치는 지금까지 서방세계가 시도한 실험중 가장 조직적인 것 중의 하나로 미국립항공우주국과 스탠포드대학및 선간기구인 젯트 추진 실험소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정밀 콤퓨터가 뒤얽혀있어 외계로부터 들려오는 74,000종류의 음향채널을 잡을 수 있으며, 추후에 8백만 음향채널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시설에 첨부될 예정이다.

12명의 과학자와 24명의 컴퓨터프로그래머가 동원된 이 실험은 인류의 가장 흥미로운 과학·철학적인 질문의 하나인 "인류는 고독한가?"라는데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계획에 가담한 과학자 이반·린스풋씨는 말했다.

## 용산고 동문회
### 새회장에 문영철씨

용산고등학교 동문회의 신임회장에 문영철씨(7회)가 선출됐다.

용고동문회는 27일 밤 쉐라톤·트라이엄프호텔에서 있은 망년회를 겸한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전세열씨(11회)와 이종원씨(13회), 총무에 오상배씨(16회)를 각각 뽑았다.

〈해 설〉

## 최초의 한일 정상회담
# 차관문제 종결할듯

나까소네·야스히로 신임 일본수상의 공식 한국방문발표는 17개월간을 끌어온 일본의 대한 공공차관문제를 종결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동안 나까소네수상의 전임자인 스즈끼·젠코수상과 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여러번 거론됐었으나 공공차관에 관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양측이 이미 차관규모와 '종류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81년 8월 6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던 한국은 현재 20억달러를 줄인 40억달러를 요청하고 있다. 일본에 이같이 큰 금액의 차관을 요청하는 한국측의 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 한국의 경제성장이 이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차관을 제공할 경우 82년부터 86년까지의 제5차 경제개발계획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일 양국관리들간에 이 상충되는 부분은 차관의 종류로 한국측은 23억달러를 장기처리인 공공차관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민간차관으로 하자는 반면 일본측은 15억달러를 공공차관으로 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일 차관협상은 지난 여름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사건으로 한국에서 재연된 반일데모로 중단됐다가 10월2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일 양국외상이 만남으로써 재개됐다.

지난해 11월말 나까소네 내각이 들어섬으로써 차관협상은 급진전됐지만 전·나까소네 정상회담을 추진시킨 핵심적 합의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점이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차관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과거 수차례 시련을 겪어온 한·일 양국의 관계는 정상회담과 더불어 새로운 기운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인 인접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수상이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그동안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견고해졌음을 시사한다.

11월26일 수상에 취임한 나까소네씨로서는 이번 방한이 첫번째 외유이며, 방한 5일뒤 그는 워싱턴을 방문, 도날드·레이건 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러한 스케줄로 보아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될것 같다는 추측이 외교소식통들간에 나돌고 있다.

나까소네수상의 방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두고볼 문제이지만 그의 방한은 아무튼 한·일 양국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할것만은 확실하다.(연합)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 1-385-1485
서부지점 ☎ : 243-9544

여러분의 년말연시 축하광고및 인사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한국일보社에게 맡기십시요. (☎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I'M AN AVERAGE PLAYER.

어느 분이 미국인과 tennis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되었다.

Are you a good tennis player? 「정구를 잘 하세요?」라는 질문에 「보통입니다」라고 한다는 것이 I'm a middle player.라고 대답을 해서 일방통행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뜻을 지닌 averag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I'm an average player.라고 대답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녀는 춤을 보통으로 춘다」를 영어로 옮겨본다면 She's an average dancer. 하면되고 How well can he speak English? 「그 사람은 영어를 얼마나 잘 합니까?」라는 질문에 「그 사람의 영어회화 실력은 보통이다」라고 해본다면 He's about average.와 같이 표현하면 된다.

average에는 「평균~하다」뜻도 있다. 「그는 하루 평균 8시간 일한다」를 해본다면 He averages eight hours work a day.라고 하면 되고, 「그는 월평균 수입이 800불이다」는 He averages eight hundred dollars a month.이같이 표현한다.

또한 average는 bowling 용어로서도 사용된다. What's you average score? 「평균점수가 얼마나 되나요?」라는 말이고 「내 평균 점수는 150이다」는 My average is 150.같이 대답하면 된다.

참고로 「나는 술을 보통으로 합니다」라는 경우에는 I'm a moderate drinker.라고 표현한다.

A: Do you like to play tennis?
B: It's my favorite sport.
A: Do you play often?
B: I play for an hour every morning.
A: Are you a good player?
B: No, just a average player.

A:테니스를 좋아하세요?
B: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죠.
A:자주 테니스를 하세요?
B:매일 아침 한 시간씩 합니다.
A:잘 치세요?
B:아니오, 보통입니다.

*favorite:마음에 드는
Ex:My favorite song is Arirang.
내가 가장 잘 부르는 노래는 아리랑입니다.
*moderate:보통의, 웬만한
Ex:He's a moderate smoker. 그는 담배를 피운다.


# 토론토 동우회 공고

## 제6대 회장선거

본회 제6대회장선거를 회칙 제24조에 의거 공고함.

1. 등록기간 : 1983년2월5일(토) 오후 5시까지.
2. 등록장소 : 290 Eglington Ave. W. Toronto Ont. M4R 1B2 (담당 : 호민식 481-2172)
3. 등록자격 : 정회원으로 회칙제25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4. 등록서류 : 회칙제24조및 본문단서에 의함.

*참고: 선거에 관한 문의는 선관위로 문의 요망.

선거관리위원 강수완 677-6506 함태호 791-2276 이영시 883-4734 호민식 481-2172 이희식 669-6746

선거관리위원회

## 제6차 정기총회

본회 제6차(83년도) 정기총회를 회칙 제9조1항및 3항에 의거 공고함.

1. 일 시 : 1983년2월12일(토) 오후 7 시
2. 장 소 : 한인회관 강당 20 Mobile Dr. (at Eglinton E. )
3. 안 건 : ①82년도 사업보고 ②82년도 감사보고 ③82년도 결산보고 ④제 6 대 회장선거 ⑤이사선임위원선출 ⑥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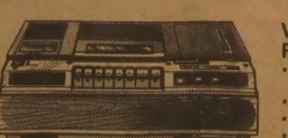
1983년 1 월 일

토론토동우회



ZENITH HI-TECH
BETA VIDEO RECORDER

SPECIAL OFFER!



VR9760W • Clear Special Effects Playback
• Dependable electronic tuning with 14-position channel selection
• Programmable 14-day, 4-event auto record timer
• Remote Video Action Control with Slow Motion
• Superb Beta picture quality with CLEAR playback
• Picture Speed Search in forward and reverse
• Audio Dub and more!

● ZENITH T.V VIDEO 염가판매
● T.V VIDEO STEREO & RADIO 수리합니다.

Town and Country
882 KINGSTON ROAD ☎691-2000
SALES & SERVICE 김광래

# 난장이 키를 키운다

## 美서 神秘의 물질「生長호르몬分泌촉진 因子」合成성공

## 糖尿病·화상치료 促進

## 가축 成長속도도 조절

【샌디에이고=朴興津기자】 성장지진아와 난장이는 물론 당뇨병과화상, 위·장·십이지장궤양 치료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 美캘리포니아州 솔크(SALK)생물학연구협회 연구팀은 최근 사람의 키를 키우면서 세포의 재생과 糖代謝등에 관여하는 신비의 물질 (GRF=Growth Hormon Releasing Factor·생장호르몬분비촉진인자)을 인체의 췌장암조직에서 찾아내 이의 화학구조를 밝히는 한편 합성에 개가를 올렸다.

이번 연구의 주역은 신경전달물질 연구의 개척자인 로저·길레만박사를 주축으로한 피터·볼렌, 롤·브라조, 프레드릭·에시와 니콜라스·링및 윌리엄·에렌버그박사팀. 길레만박사는 뇌에서 호르몬분비를 촉진하는 신비의 물질 즉 신경전달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 77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이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이다.

이들솔크생물학연구팀은이번에 다시GRF를발견, 이의 합성에 성공함으로써 뇌가 어떻게 생물의 생장과 생체조직의 기능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많은 수수께끼를 풀게했다.

GRF란 인간의 골격성장과 체중 그리고 결합조직 형성및 내부기관 발달에 결정적역할을 하는 신비의 물질. 생장호르몬을 조절하는 생장호르몬은 체온과식욕, 갈증, 수면과 불면, 혈중당도와 체내염분 그리고 수분과 인간의 감정까지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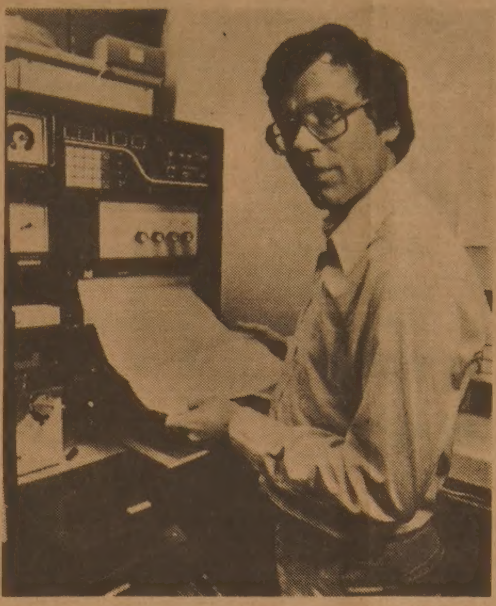
생물학자들은 그동안 GRF가 뇌속의 視床下部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혈액속에 포함된 양이 1백만분의19정도의 극미량인데다 이의 추출과 화학성분의 분석이 어려워 너무 많은 경비와 시간그리고 노력이 소요돼 연구를 중단해왔다.

자신이 개발한 아미노酸분석기를 이용,GRF의 분석과 합성을 성공으로 이끈 볼렌박사는 GRF의 합성 성공으로 뇌하수체의 불충분한 생장호르몬분비로 인한 난장이 치료는 물론 생장호르몬이 당뇨병 치료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것이라 설명했다.

GRF는 또 화상을 비롯한 각종 상처의 치유를 보다 빠르게 촉진시키고 궤양에 의한 출혈예방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생장 호르몬은 이밖에 중년기후반에 분비가 뚜렷이 줄고 있어 GRF의 규명으로 老化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솔크팀은 기대하고있다.

GRF는 또한 인류의 식량난 해결에도 큰전기를 마련할것으로 보고있다. GRF를 이용, 가축의 성장 속도와 크기까지 조절할수 있기때문. 볼렌박사는『인공합성한 GRF를 쥐에 투여한 결과 성장 속도가 10일만에 보통쥐의 20%이상 빨랐다』고 말하고『FDA(美식품의약국)의 인가가 나는 올봄부터 인체실험에 들어가게될것』이라고밝혔다.

볼렌박사는 가축의 성장촉진에 대해『가축을 GRF로 보다 빨리 키울수 있기는 해도 고기의 맛등 여러 부수문제는 미지수』라 밝히고『집채만한 소를 키워야할지 아니면 작은 크기이지만 같은 종류의 가축을 보다 많이 키우느냐 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별도로 고려해야할것』이라 덧붙였다.



◇아미노酸의 數와量측정기 자신이 고안한 아미노酸분석기 앞에선 피터·볼렌박사。단백질속에 포함된 아미노酸의 수와 양을 측정하는 이기계는 GRF의 분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全대통령 新年辭 "우리의 底力 自信을 갖자"

## "스스로가 하는일 責任을 져야"

◇癸亥年 새해를 맞은 全斗煥 대통령과영부인 李順子여사。

全斗煥대통령은 1일 癸亥年 새해를 맞아『오늘의 굳은 의지를 믿고, 내일의 빛나는 結實을 믿으며, 또한 스스로가 하는일을 믿을때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라고 전제, 『그러한 미래를 위해 83년이 우리 모두 自信을 가지고 각자 맡은분야에서 최선을다 하는 한해가 될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新年辭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의 일을 우리가 확실히 책임지고 또 우리의 일을 우리자신부터 굳게믿는 그런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것이 오늘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지난 한해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오히려 세계인들이 더욱더 놀라와 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의 나라를 좋게 말하는데 있어 인색하기 짝이없는 각박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할때 이들로부터 이만큼의 공정한 평가를 받게된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國運과 底力에 대해 어느정도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때가 됐다고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3년전의 혼란기때는 모두들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으나, 우리는 단시일안에 안정을되찾고 혼란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발전속도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민족의 偉大性을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의 힘과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해 투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은 前進을 倍加시키는 요체이기도 한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지난해를 회고하며 『83년이 우리 南北의 동포들이 모두 손잡고 나라와겨레의 내일을 함께설계하는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해가 될것을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히고 『금년한해가 동포여러분들에게 어느해보다도 瑞氣어린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가정에 和睦과 행복이 금년내내 충만하기를 축원한다』고말했다.

## "北傀도발징후 早期에 포착 有事時 즉각反擊태세 완비"

### 韓美연합司 세네월드사령관 밝혀

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령관 로버트·W·세네월드대장은 癸亥年을 맞으면서 『새해는 한·미연합군의 통신및 정보시스팀을 현대화하여 북괴의 후방깊숙한 곳까지를 꿰뚫어봄으로써 적의 도발징후를 미리 캐내 유사시 일격에 격파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세네월드 대장

세네월드사령관은 한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82년 1년동안 주한미군은 급식·피복 기타 보급품 소모에 1억5천만달러를 지출했으며 이가운데 87%에 이르는 1억3천만달러 상당을 한국에서 사들였으며 13%에 달하는 2천만달러어치만 본국에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 政府, 4일始務式

정부는 새해 始務式을 4일상오10시 중앙청 중앙홀에서 가졌다. 始務式에는 在京 3급이상 공무원 8백여명이 참석 한다.

## 書記官·事務官級 79명 人事를단행

문공부는 31일 職制개편에 따라 서기관급 26명과 사무관급 53명을 轉補하는 대폭적인 人事를 단행했다.

# 올해는 우리도 産油國

## 4鑛區등 15개孔을 탐사

올해에는 우리나라도 産油國에의 소망이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대륙붕에서, 우리의 손으로 개발하고있는 해외 油田에서 검은 기름이 펑펑솟아져 나온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다. 산유국의 꿈이 실현될수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대해 볼만하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단독광구인 4광구와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油田에서 7개孔을뚫고 한일공동개발 구역에서도 8개孔을 시추, 모두 15개孔을뚫는 대대적인 油田탐사작업을 벌인다.

한일공동 개발구역에서의 8개孔시추는 코암社등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 일수있으나 시추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부터 82년까지 13년동안 국내대륙붕에서9개공, 해외에서2개공등모두11개孔을뚫었다. 새1일 동자부가 확정한 새해유전개발계획에 따르면 오는3월 제4광구에서 3개孔을,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유전에서 오는4월까지 2개孔, 오는5월에서 연말까지 2개孔을각각뚫기로했다.

4광구는 세계적으로 배사구조가 발달한 3기층 분포지층이고 최근 자료해석에서 배사구조가 크고 뚜렷하게 나타난 광구이다.

이광구는 美코암社가 지난 69년 6월부터 71년 7월까지 물리탐사 (1만3천9백83라인 킬로미터)를 실시했었으나 시추는 하지 않았었다.

美자펙스社가 이지역에대한 시추를신청, 정부는 작년 6월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9월 물리탐사 (5천4백84라인킬로미터)를 실시하고 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배사구조가 크게 발달하고 뚜렷하게 나타나 오는3월 1개공을뚫고 그결과에따라 2개孔의 평가정 (評價井)을 뚫기로했다.

세계적인시추전문회사인美자펙스社가 시추비용전담, 시추하기로한 결정자체에서도 석유부존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있다.

한편 印尼서마두라유전은 지난70년대초 美시티·서비스社가시추, 日産5천배럴까지 생산할수있는것으로 판정됐으나그당시로서는경제성이약해개발을포기했던지역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코데코에너지(株)가 이지역을 개발토록해서 현재 2개孔을뚫고 생산능력검사(DST)를 마쳤으며 현재 3차孔을 뚫고있는데 이달중에 생산능력검사를 끝내게되며 4월까지는 1개孔을 더 뚫어 1차 시추계획을모두끝내게된다.

## 한국일보詩壇

### 茶時間의 旅行

朴容秀

눈이 내리시는 이런 날에야
잠시라도 서울을 벗어나 볼 일이다.
종로거리 아무데서나 지하철을 타고
코피타임에 갈수 있는곳
교외의 한적한 간이역도 좋겠지만
오래 잊고 지낸 친구를 찾아볼수도 있잖겠느냐
하긴 근무시간이라 나올수 없다고 핑계하겠지만
그거야 서운해 할일이 못되지
우리서울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적적하더라도 혼자서 코피나 한잔
그리고는 눈기전에 돌아올 일이다.
눈이 내리는 이런 날이면 찾아올
몇몇 격조했던 술친구 허행시키지 않기위해서라도
어둡기 까지는 사무실을 지켜야지
더구나 우리형편에 긴 여행이란 분수없는
짓이겠고

## 社会漫評

## 地平線

새로운 태양이 다시 떠올랐다. 시든세월이 한꺼풀을 벗어던지고 새해 새날 새아침이 밝았다.「해야솟아라。해야 솟아라。맑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산넘어 산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이글 애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朴斗鎭의「해에서」)。나이테는 하나 늘어나도 이런 시를 읽으면 힘이 불끈솟고 오히려 젊어진다。시가없는 생활은 삭막하기조차하다. 시에는 희망이 넘친다.

▼설날아침을 노래한 농가월령가는 마냥 흥겹다。새해의찬미와 삶의 환희가 고동친다。「正朝에 세배함은/敦厚한 풍속이라/새 의복 떨쳐입고/친척 隣里 서로 찾아/노소 남녀 아동까지/삼삼오오 다닐적에/와석버석 울긋불긋/物色이 번화하다」。설빔 새옷이 스치는 소리가 와석 버석、정말 눈부시고 정겹다。그래서 노래소리는 목청을 더 높인다。「사내아이 연띄우고/계집아이 널뛰기요/윷놀이 내기하기/소년들 놀이로다」。우리의 歲時풍속은 이렇게 활기가 가득하다.

▼「落日은 서산에 져서 동해로 다시 나고/가을에 이운 풀은 봄이면 푸르거늘」(李鼎輔의 시조)。새로운태양엔 봄빛이 서린다。靑山 어딘가엔 벌써 待春의 햇볕이 고양이처럼 졸음을 참고 있을 것이다。正初부터 움터 오르는 봄엔 헌영이 아름답게 피어난다。「즐거운 봄이 찾아와 온갖 꽃들이 피어날때에/그때 내가슴속에는 사랑의 싹이움트기 시작하였네」。시인 하이네의 가슴엔 아지랭이처럼 봄의 사랑이 촬랑거렸다。설날은 삼가는날(愼日)이란 뜻도 새겨 있다。삼가한다는 것은 차분하게 기다림을 뜻한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배가 오면은 님도 탔겠지(中略) 님이 오시면 이설움도 풀리지/동지섣달에 얼었던 강물도」(金東煥의「江이 풀리면」)。님은 우리 모두 기다리는 봄이라고 풀이해본다。凡常한 하루 하루지만 새것과 새로와지길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간절하고 새롭다。지난날 교훈은 살려가고 괴롭고 서러웠던 일일랑 忘却속에 접어넣자。

▼1983년이 열렸다。새희망을 새노래에 담고싶다。이 해엔 가슴을 활짝열고 밝은詩心으로 살아가자。시의 정열은 우리삶을 각박하지 않게 윤기를 빛내 줄것이다。새아침축복이 모든 독자에게 차고 넘치기를 빈다。

謹賀新年
한국일보社 任職員一同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일보
우리의運命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거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제64회 동계체전
아이스하키
중등부결단식공고

금번 본 체육회는 제64회 동계체전에 아이스하키 중등부를 파견키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여러선배님들을 모시고 결단식을 갖고저 하오니 공사바쁘시겠사오나 부디 참석하셔서 출전하는 선수들과 임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소 : 한인회관
일시 : 1983년1월15일(토) 오후4시

체전참가선수단
단장 이 호 석
재캐나다체육회
회장 이 병 권

고향의 맛
서울 하우스
한식, 중국요리
— 각종 국수 전문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주7일 Open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15 BLOOR ST. W.
532-0602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현재 주류면허 신청중.

천부교전도관

새해를 맞이하여 이기신 우리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캐나다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카나다에 거주하시는 천부교전도관 식구들을 찾고 있읍니다.
먼저 전화를 주세요.

☎ : (416)745—7463
MR. 송

# 全世界 공격목표로 蘇 미사일 配置

## SS20武裝 로키트 韓半島·中央亞겨냥

【워싱턴=李文熙특파원】소련의 핵무기는 미국 본토만을 겨냥해 시베리아 북부지역에 모두 배치된것이 아니라 남부및 극동등 전세계를 공격목표로 배치돼 있는것으로 판명됐다고 30일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보고서가 밝혔다.

이 연구는 존·베이커와 로버트·버언양씨에 의해 지난5년간 계속된 것으로 소련미사일은 미국 西유럽외에 주요국 軍기지, 航母등을 포함한 기동타격대에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보다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게된 이유라고 이보고서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소련은 지역에 따라 대륙간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혼합배치하고 있으며 SS19 대륙간 미사일이 주로 유럽을 겨냥하고 있는데 비해 SS11및 SS17등은 미국 전역과 캐나다를 목표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S20 중거리 미사일로 무장된 로킷트타격대는 유럽, 남부유럽, 近東, 중앙아시아외에 중공과 한국, 일본등 극동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련의 다음 단계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미사일의 개발이며 美국방성 소식통에 의하면 이미 3백33基의 이동미사일이 배치돼있는 것으로 돼 있으며 소련은 지금 새로운 미사일의 시험을 준비중에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 世界 곳곳에서 氣象異變 속출

#### 北예멘엔 또強震

【사나·뉴델리·뉴욕 AP·UPI=聯合】30일 북예멘과 인도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남미의 에콰도르와 미국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 등지에서는 홍수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는등 세계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및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2주전 북예멘의 다마르지역에 강진이 발생, 3천명의 사망자를 낸데이어 이날 상오 이지역에 다시 리히터지진계로 4도를 기록한 지진이 발생, 수천명의 주민이 집을 뛰쳐나와 대피했으며 가옥들이 크게 파괴되는 재산피해를 냈으나 아직 인명피해상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국영 사나방송은 수도사나 남쪽의 다무르지역 수백세대가 이날 2차례지진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하고 긴급구조반이 피해지역에 급파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인도의 동북의 아삼과 메갈라야 州에서는 리히터지진계로 강도5·8을 기록한 지진이 발생, 건물벽이 크게 금가고 겁에 질린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소동을 벌였다고 인도의 한방송이 보도했다.

또 영하30도까지 내려갔던 북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와 펀잡주의 한파는 30일에도 계속되고 있는가운데 이날 사망자수가 5명이 늘어남으로써 지금까지 이상한파로 인한 사망자수는 13명인것으로 집계되었다.

에콰도르정부는 이날 군인들을 대량 투입, 민간인에대한 구조작업을 벌였는데 지금까지 이로 인한 희생자수는 총83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에콰도르 해안지방에는 지난 수일간 폭우가 쏟아져 3천가구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가운데 오스발도·우르타도대통령은 이날 피해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美와 頂上會談 희망

## 蘇, 核감축協定 가능성도

### 안드로포프 밝혀

【모스크바·뉴욕 UPI AP=聯合】안드로포프소련공산당서기장은 美·蘇간에 「적절한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레이건대통령과의 미소정상회담을 환영하겠다고 말하고 미·소간에 핵무기감축협정이 이루어질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낙관한다고 소련관영타스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안드로포프서기장은 소련건국60주년을기해 美허스트紙 국내담당편집인 조셉·킹즈베리·스미드씨와의 서면회견을 통해 「우리는 미·소관계개선과 양국간의 호혜조약및협정의 이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위한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드로포프는 취임후 첫서방언론인과의 회견에서 4개항의 질문에 부드러운 표현으로 답하면서 『소련지도자들은 항상 최고위급 접촉을 국가간의 관계개선을 위한매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보아왔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지금도 이같은 견해를 변함없이 갖고있다』고 말했다. 안드로포프는 그러나 이러한 「최고위급회담」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레바논 撤軍협상進展

#### 2차회담 閉幕 共同성명

【키리아트시모나(이스라엘) AP·UPI=聯合】이스라엘과 레바논은 30일 북부이스라엘의 키리아트시모나에서 레바논 주둔 이스라엘軍의 철수에관한 제2차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 양국간의 이견 가운데 일부는 해소되고 일부는 좁혀졌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비·파즈네르 이스라엘외무성대변인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의제의 합의라는 첫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진전이 이날 회담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즈네르 대변인은 양국대표들이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의제선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만 밝힌채 이견이 해소된 사항과 견해접근을 본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

## 特別寄稿

# 우리도 잘 살수있다

金世源 〈서울大 社會大교수〉

## 倫理·가치觀 再定立바탕 量보다 質的成長 추구를

프랑스학자들은 韓佛이 다같이 「오래된 나라」이면서도 한국경제에서는 자기들 대폭에서는 볼수 없는 「젊은 活力」을 보았다고 말하고있다.

「젊은 小動感」은 우리가 느낀다 하더라도 문제는 안정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이미 일부 선진당국자는 저물가, 저금리시대로 접어들었고, 국제수지가 균형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安定的 成長의 기반이 확립되고 있다고 공언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직접적으로 達成해야 할 「목표」가 되기보다는 관련여건들이 조성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데 한국적인 특수성과 고민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자주 강조하는 정치 (예로 안정기조의 組織과 갈등)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보며 이러한 과정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목표달성은 결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이론이 생산, 발전하여 온 歐美제국이라면 그나름대로의 전통적인 가치관, 윤리관의 토대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은 무리없이 計劃的 經濟現象의 한 측면을 말하여 줄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양적인 표현이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며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는것 같지는 않다.

과거 개발초기, 절대 빈곤속에서 양적 확대위주의 성장정책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급속한 공업화와 함께 적지않은 사회, 경제적 불균형, 부조리, 갈등, 마찰등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제거되지 않는한 더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게 되었다. 또 이는 단순히 부작용의 퇴치라는 부정적인 시도 보다는 한국적인 가치관의 確立및 定立이라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보며 여기에서 향후 한국경제가 필요로하는 고유의 발전모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의 한국경제에 있어서 최대 「콤플렉스」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인플레」 심리와 근절하기 위해 온갖 수단이 동원되어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물가가 크게 떨어지고 당분간 안정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및 저축의 증대와 같은 구조적 여건의 개선에 따라 안정적성장의 기반이 확립되었다고 볼수 있을까? 또 한국경제가 정작 필요로 하고있는것은 물가 뿐만아니라 투자, 생산, 소비및 저축등 제반 거시변수의 안정이 아닐까?

경제안정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모든 경제주체로 하여금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수있도록 그 여건을 형성하여 주는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조의 확립」으로서 이는 法則的, 構造的인, 그리고 경제는 물론 사회적 여건이라는 제요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볼때 한국경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과제는 고유의 전통, 문화및 윤리의 바탕위에 공동체 의식을 주내용으로 하는 한국적 경제질서의 확립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처한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경제발전을 시도함으로써 그 기반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 보람을 찾을수 있는데 이는 건전한 가치관의 정립을 전제로 한다. 한편 시장경제가 경제적 자유를 밑바탕으로 하나 사회적 의식을 가정으로 할때만 비로소 그 의의가 있는것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역시 단순한 명분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다수 경제주체의 의지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자연히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경제발전은 단순히 양적 확대 뿐만아니라 생활의 질적개선에도 그 목적이 있다. 어느 의미에서는 한국경제가 질적개선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양적확대를 이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기도 하다.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보람을 느낄수 있는 경제질서가 수립될 때 안정적 성장, 생산성의 증대, 기술개발, 국제수지 개선및 균형발전등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그 결과로서 자연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

# 癸亥 새아침 各界新年辭

## "富强祖國되게 각자 最善을"

丁來赫국회의장

지난해에 보람찬 성과와결실을 가져올수있었던것은 투철한 주인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때문이다. 우리는 올해에도 더욱 정진하고 분발해야겠다.

美·蘇간의 전략무기 경쟁, 中共의 미묘한 동향, 中東문제의 불확실성등 국제정세는 하나같이 향방을 예측할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편승한 北韓은 우리의 성실한 대화제의를 계속 외면한채 내부의 權力 暗鬪와 주민들을 機密化하기위해 對南무력도발에 血眼이 되어 있다. 우리는 安保태세를 다지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 이익과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야하겠다.

## "嚴正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兪泰興 大法院長

우리사법부는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함된 힘을 쏟아 신속하고도 적정한 재판과 효율적인 사법행정의 처리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다져왔음을 마음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우리법원의 전법관과 직원은 더욱 엄정(嚴正)하고 더욱 친근한 법원의 모습을 구현하여 국민으로부터 더한층 신뢰와 칭송을 받게되기를 거듭 다짐하고있다.

이땅위에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위한 보루로서의 임무를 찾아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추호의 의혹도 없을것이며 복지사회에서의 사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의식하에 편리하고 능률적인 사법이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 참다운 民意수렴

李載灐 民正대표

희망찬 癸亥年 새해아침을 맞이하여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위해 묵묵히 애쓰고있는 국민여러분의 온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작년한해에는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닥쳤으나 온국민이 일치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오히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을뿐아니라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함으로써 제5공화국을 반석위에 올려놓는 뜻깊은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民正黨은 새해에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기위해 더욱더 노력할것을 다짐한다.

## 民主政治 토대구축

柳致松 民韓대표

11대국회後半期를 맞이한 올해는 보다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어야겠다.

우선 우리民韓黨은 2년전의 좌절과 역경에서 탈피, 온 국민이 갈망하는 평화적政權교체를 위한 민주토대구축에 정력을 쏟을것이다. 이제 解氷에는 제한과 지연이 있을수없다. 우리는 당이 창당되어 많이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민주체제구축과 공정한 경제적분배에 배치되는 어떠한 정책도 결코 묵인하지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 주화와 정치발전에 선도적역할을 다할것이다.

## 獨善정치 안되게

金鍾哲 국민총재

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큰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던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실로 시대적 책임의식을 느끼지않을수 없다.

爲政者의 약속이나 정치인의 政見이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로 나타날때 그파급현상은 國政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不信과 反目의 연속으로 되풀이 된다. 따라서 새해를 맞는 이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고본다.

내주장만 옳다는 獨善이나 편견된 我執이 불식되고 의회주의가 다양한 견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정치풍토가 시급히 조성되어야한다. 새해를 맞아 우리당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民意를 수렴한 정책代案을 제시, 합리적인 비판과 대화를 통해 이나라 민주정치를 ...

## 人事異動

文公部 ▲기획예산담당관 鄭德容 (문화과장) ▲문화과장 秦炳茂 (출판과장) ▲행정관리담당관 弘鐵奎 ▲지원과장 丁鍾振 (법무담당관) ▲종무 2과장 宋務行 ▲행정과장 李漢洪 (종무2과장) ▲〃지원과장 李相鐘 (종무관실) ▲문예진흥과장 李洪寶 (해외공보관지원과장) ▲문화재1과장 ...

서울市 ▲감사담당관 田燦明 ▲종합민원실장 金昌信 ▲민방위국장 李東植 ▲龍山구청장 金亨壽 ▲지하철건설본부 서무과장 姜錫根 ▲공무원교육원교학과장 文子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洪鍾敏 ▲江東구청건설국장 金文學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과견 申彦炳 ▲漢江건설사업소 金榮洙 ▲준비요원 宋仁憲 ▲平구청도시정비국장 李炳普 ▲光수원지사무소장 李元遠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 ▲龍山구청건설국장 李相周

國民銀行 ▲중앙사무분실장 成宗玉 ▲서부사무분실장 金... ▲강남사무분실장 朴... ▲부산지사무분실장 仁植 ▲대구사무분실장 黃宗在

## 文化短信

### 82년 문제작가 14人 選定

평론가14인이 선정하는 「82년문제작가」 14명이 결정됐다.

선정 작가는 申山沃, 李箭, 金芳翼, 김인환, 민정기, 오윤, 이상국, 임송자, 신학철, 노원희, 김판수, 서용선, 강하진, 안병석씨.

문제작가는 서울미술관(관장 金潤洙)에서 지난해부터 1년간의 창조적작업을 점검하고 그성과를평가 정리하려는데 목적을두고 비평활동이 활발한 중견이상의 평론가14인에게 작가와 작품선정을위촉해서 뽑은것.

이번에 선정된 작가는 내년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서울미술관에서 개최되는 「82년 문제작가 작품전」에 초대출품된다.

---

# '83 한국新春文藝당선작 발표

## 社告

내일의 우리 文壇을 이끌어 나갈 83년도 한국新春文藝당선자들이 탄생했읍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새해 文壇에 혜성처럼 등단한 영광의 새 작가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21일하오4시 한국일보社 12층강당에서 열립니다. 당선자 (戱曲부문은 佳作)와 당선작및 심사위원은 다음과같습니다.

◇詩 (고료50만원)
**물의 비밀**
任文赫 (33세·교사)
(서울麻浦區阿峴洞652의1)

◇小說 (고료1백만원)
**길고 긴 노래**
金赫 (26세·대학생)
(서울東大門區里門2洞326의4)

◇時調 (고료40만원)
**果園日記**
申侊榮 (39세·은행원)
(서울東大門區里門2洞삼익타운 11동101호)

◇童話 (고료40만원)
**고무줄 새총**
姜敏淑 (34세·주부)
(서울西大門區弘濟2洞 문화촌아파트7동111호)

◇隨筆 (고료40만원)
**茶緣記**
柳康浩 (33세·주부)
(서울江南區淸潭洞110의11)

◇戱曲 (佳作·고료30만원)
**굴(窟)**
李昌炫 (28세·무직)
(서울冠岳區奉天7洞1611의9)

◇심사위원
▲詩=徐廷柱·金南祚(본심) 蔡熙汶(예심)
▲小說=金東里·金丙翼(본심) 金淸(예심)
▲時調=鄭椀永·李根培
▲童話=尹石重·金耀燮
▲隨筆=趙敬姬·朴演求
▲戱曲=車凡錫·李根三

한국일보社

---

# 메아리

## 보따리

金昌悅 〈編輯委員〉

새해가 門께로 다가 왔다. 보니, 돼지 모습이다. 비죽한 코가 분명 멧돼지다. 문앞 門所의 문지기가 소리친다.

「뉘시오」
「나요」
「나라니, 누구요」
「새해요」
「새해?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런것 없소만, 참 이상하구려. 야간통금 없어진지가 오래라고 하던데, 밤길이 왜 이리 까다롭소」
「年末年始비상경계라 그렇소. 신분증 내시오」
「그런것 없다고 하지 않았소」
「내 相 좀 보시오. 당신네가 꿈에도 그리는 얼굴이오. 꿈에 나를 보면, 財運이 있다, 자식福이 따른다고 하는게 당신네들 아닌가」
「그뿐인가, 당신네를 빌게 있을때 뉘앞에 절을 하오. 그게 바로 나요. 그래도 신분증이 있어야 하오?」
「그래도 신분증은 있어야 하오」
「답답하구먼, 孫悟空 닮은 양반, 당신은 猪八戒 사나운줄만 알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는구려.

내 고기맛은 접어 두겠소. 내 가죽은 쓸만한 皮物이오. 털은 솔과 붓 만드는데 요긴하오. 내 담은 煩渴·眼疾에 좋으니 猪膽이요, 내 간은 어린이 경풍에 좋으니 猪肝이요, 내 밥통은 허약한 사람에 좋으니 猪肚요, 내 발톱은 백가지 藥毒을 푼다고 했으니 猪蹄요, 痘瘡에 쓰기는 내 꼬리에서 받은 猪尾血이요, 간질약으로는 내 염통의 猪心血이요, 먹은 귀 뚫기는 猪膽汁이라 했소. 미심하면 「本草綱目」이라도 펴보오」

「알겠소. 그런데 등짐 보따리엔 무엇이 들었소」
「이 큰 보따리엔 꿈이 들었소. 맨위에 꾸러미는 大入꿈이오. 저마다 3백점이상 맞았다는 무슨 考査인가를 발표하는날 품은것이오. 다음은 작년과 마찬가지 「下半期」에나 풀린다는 景氣꿈이오. 4월께 펴볼 地自制꿈도 있소. 찾는사람은 별로 없을테지만, 解禁꿈도 들었소. 海外觀光꿈도 있소만, 이것도 몇사람에게나 소용이 닿을지는 모르겠소. 그리고 이울먹줄먹, 올망졸망한 것들은 해마다 듣던 그 숱한 말과 약속을 차곡했다 꿈으로 챙긴 것들이오.

아, 또있소. 온 사람이 3백65일 내내 걸어지고 다닐 돈꿈·돼지꿈·, 내집꿈·장가꿈·시집꿈에, 이런꿈·저런꿈, 여러나라의 꿈에다가 하마하마의 꿈─이런 것도 낱낱이 다 고해 바쳐야 하오?」
「그렇소. 몽땅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오」
「꿈에도 세금이 붙소?」
「꿈도 꿈 나름이오. 허황된 꿈에는 세금을 매겨 마땅하다는 지시가 있었소」
「그렇다면 할말 하오만, 허황된 꿈인지 아닌지를 지나보지 않고야 어찌 알겠소. 꿈치고 허황되지 않은게 또 어디 있고…」
「말이 너무 많소. 그 작은 보따리는 무에요」
「걱정이 들었소. 두 꾸러미뿐이오. 하나는 꿈이 깨질까 걱정, 또 하나는 꿈에도 생각못한 일이 생길까 걱정」
거 왜, 宦家에서 났던 일, 손큰 여자가 저질렀던 일─그런것 말이오」
「알겠소. 그럼 보따리를 끌러 보시오.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겠소」
「답답하긴─. 꿈 보따리를 미리 끄르는 법이 어디 있다오. 풀어놓은 꿈이 꿈일수가 있소? 꿩지를 따서 김새는게 맥주뿐이랍디까」
「그럼 작은 보따리라도 끄르시오」
「점점 더 답답하구려. 내명색이 새해인데, 걱정 보따리를 먼저 풀겠소? 걱정이 있어도 없는척, 걱정일랑 숨겨놓고, 「복많이 받으시오」─절을 받을적마다, 「오냐 오냐 너도 소원성취해라」하는게 새해인줄을 모르오?」
「그럼, 어쩌자는 거요. 좌우간 세금은 내야하오. 그게 규칙이오」
「오늘 하루쯤 그런 규칙은 접어 두오. 대신 내딴의 德談이나 하나 하리다.

禍福無門.

災禍와 福祿은 들어 오는 문이 따로 있는게 아니니 타고난 팔자가 아니요, 사람들이 제가끔의 善과 惡으로 이를 불러들일뿐이란 뜻이오. 有識한체 「左傳」에서 끌어 댔소만, 이땅俗談으로도 쓰이는 말이오. 어떻소?」
「말뜻은 알겠소. 하지만 세금은 내야 하오. 그리고 신분증은 어디 있소?」
「에끼, 답답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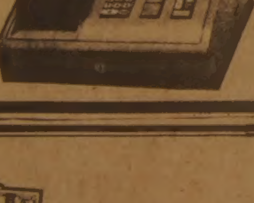
실랑이하는사이, 밤이깊었다. 서울시청이 종을칠 시각, 눈썹이 세까 눈 못붙이던 애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어느 틈엔가, 새해는 門안에 있었다. 그등에는 두보따리 등짐이 보이는데, 문지기와 門所는 간곳이 없다. 다시 생각하니 무슨 실랑이가 있은 것같지도 않다.

새해가 오는 길목에서, 꾸벅하고 잠시 꿈을 꾼 모양이다.

---


Pender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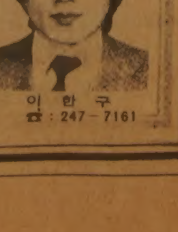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533-2361

SEASON'S GREETINGS
영리무역
대표·이영현
☎: 445-6704

무역인협회
회장·이영현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 1983 癸亥

## 돼지는 富의 상징

### 癸亥年에 다시 듣는 豚公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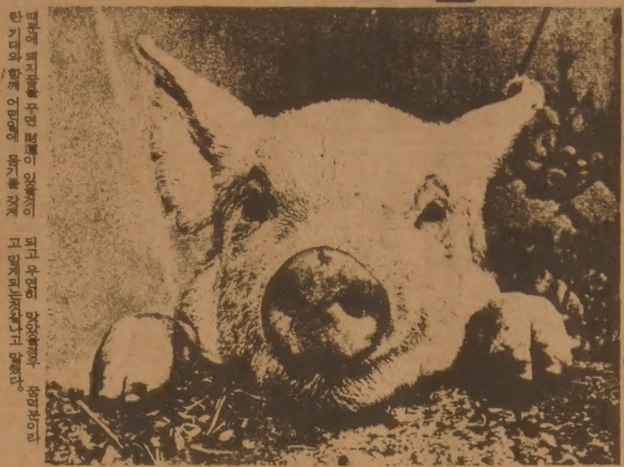
1983년이 밝았다.
새해는 癸亥年으로 돼지띠의해다. 한국사람들은 예부터 돼지를 富와 福의상징으로 돼지꿈을 財運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해를 맞으면서 무언가 행운과 재운이 따를것으로 믿는것도 이때문이다.
정신의학자 李揆東교수 (서울大) 金光日교수 (漢陽大) 작가 韓戊淑씨 민속학자 任東權교수 (中央大) 와 崔常壽씨로부터 돼지꿈과 돼지에얽힌 傳說, 故事등을 들어본다.

**돼지와 民俗**

…번에 10마리이상의 새끼를 낳아주는 多産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원시사회에서 소중히 여겨왔다. 이런 원시사상의 영향을 받아 돼지는 富의 상징으로서 오늘날의 우리생활관습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아이들을 10살때까지 부자가되라는 주술적의미에서 「돼지」라고 부른다거나 「돼지꿈」을 좋게여기는것도 이때문이다. 돼지는 다른가축처럼 일하지않더라도 편하게 먹고 지낸다는 점에서 먹고살기가 어려웠던 古代人들에게는 羨望의 動物로 부러움의 대상이되었다.

**돼지꿈과 財運**

우리 주변에서 돼지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됐다느니 어떤사업에 재운을 얻었다느니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다.



때문에 돼지꿈을 꾸면 財運이 있을것이라 기대와 함께 어떤면에 용기를 갖게 되고 우연히 맞았을경우 꿈덕분이라고 믿게되는것같다고 말했다.

## 禍막고 福주는「多産」

### 놀고도 먹고사는 動物…古代人 부러움도
### 돼지의 꿈은 근거있는 '潛在意識의 표현

## 새해童話

# 돼지꿈

李東泰 作

◇雨潭 李寧秀 그림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308>

부드러운겨울 ㉞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 교 회 안 내

| | | | | |
|---|---|---|---|---|
| 가나안교회 | 이정준 | 주일오후 1:30 |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 742—7010 |
| 대한교회 | 조남유 | 주일오후 2:00 | 3819 Bloor St. W. | 621—6340 |
| 대한수도원 | 조권사 | 철야기도 금 밤11:00 평일기도 오후2:00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 100 Lawlor Ave. Tor. | 698—5363 |
| 런던제일교회 | |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 135 Briscoe St. E. | (519)439—633 |
| 런던한인교회 | 신용규 |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10:00 | 530 Topping Lane. London | 473—5257 686—0224 |
| 메시아한인교회 | 조창환 |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 1580 McCowan Rd. | 298—1876 |
| 시민교회 | 조성관 |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기도 밤 9:00 | 662 Pape Ave. Tro. | 266—4918 |
| 선교교회 | 강제철 | 주일오후 1:00 | 1 Greenland Rd. | 444—8002 |
| 임마누엘교회 | | 일요오후 2:00 | 63 Dunblaine | 488—4141 |
| 은성장로교회 | 장은덕 | 주일오후 2:00 |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 694—9691, 266—8820(R) |
| 제7일안식일 | 박형종 |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 255 Finch Ave. W. | 630—4284 |
| 중앙한인연합교회 | 김태규 | 주일오후 12:30 | 353 Sherbourne St. | 922—3863, 922—0605 |
| 천주교회 | 최규식 |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 439 Dundas St. E. | 863—0415 |
| 충현교회 | 박경남 |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 8:00 | 240 Manor Rd. | 446—1211 |
| 한인중앙교회 | 정관일 |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 502 Bathurst | 245—4980 (전화설교) |
| 한인교회 | 반병섭 | 주일예배 오후 1:30 | 69 William St. Weston | 243—9543, 743—8082(R) |
| 해밀턴연합교회 | 김낙중 |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 1570 Main W. Hamilton | 627—4329 |
| 키치너워터루교회 | 정동석 |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 388 Ottawa St. S. Kitchener | (519)579—0954 |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illegible]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 [illegible] 한국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캐나다)에 [illegible] 2월에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불가리아에서 개최된다. 대한체육회는 이들 두 대회외에도 24개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에 선수단을 파견,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83년을 기해 대표선수들의 세대교체를 단행할 경기종목도 많다.

7월 헝가리에서 열리는 세계체조선수권대회를 출발로 9월 소련서 레슬링및 유도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등 올 한해 동·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잇따라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한국대표선수단은 경기력에서 좋은성적을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공산권에서 한국의 약진하는 모습을 심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호스티스가 되어 치를 국제대회도 다른해에 비해 많다.

제13회 대통령배축구대회가 6월에 열리며 서울국제마라톤대회도 4월에 개최된다. 6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국제육상대회가 개막된다. 83년에 한국서열릴 국제체육대회는 모두12개. 【[illegible]기자】

# '83 스포츠 캘린더

## 2·7월에 冬·夏季U대회、LA올림픽地域예선등 24개 세계大會에 선수단파견

## 한국開催 국제大會 12件…4월 國際마라톤·6월엔 대통령盃축구·國際아마복싱

◇종합 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7월1~11일·캐나다에드먼턴)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월18~27일·불가리아 소피아)

◇육 상

▲오오사까 국제 여자마라톤 (1월30일) ▲韓中친선 (6월) ▲세계대학생 (6월·이탈리아) ▲1회세계선수권 (8월7~14일·핀란드) ▲페낭마라톤 (9월) ▲미국국제나이키 마라톤 (9월) ▲5회 아시아선수권 (11월·쿠웨이트) ▲東京 국제여자마라톤 (11월) ▲후쿠오까국제마라톤 (12월)

◇축 구

▲LA올림픽 아시아·대양주예선 (11월·홍콩) ▲1회 태국 청소년 (1월·방콕) ▲11회 韓日정기전 (3월·일본) ▲12회 마라하림 컵 (4월·인도네시아) ▲1회 독립기념컵 (8월·인도네시아) ▲27회메르데카배 (9월·말레이지아) ▲2회 머라이온컵 (10월·싱가포르) ▲16회 킹스컵 (11월·태국) ▲DCM대회 (11월·인도)

◇농 구

▲9회 세계 여자선수권 (7월24~8월6일·브라질) ▲이란 회교혁명 4주년기념 (2월10~18일) ▲쿠웨이트 국제 (2월18~25일) ▲태국황태자배 (3월4~12일) ▲존즈배 (6월15~28일·여자, 7월2~15일·남자·대만) ▲12회 남자 ABC (11월·홍콩)

◇배 구

▲제3회아시아 선수권 LA올림픽예선 (11월10~20일·여자, 11월21~30일·남자·일본) ▲환태평양주니어선수권 (8월·하와이)

◇탁 구

▲37회세계선수권 (4월28일~5월9일·일본) ▲스칸디나비아오픈 (12월·스웨덴) ▲全美오픈(6월·미국) ▲캐나다오픈 (5월) ▲아시아주니어선수권 (12월·바레인)

◇야 구

▲대륙간컵 (7월·벨기에) ▲韓美대학선수권 (8월·미국) ▲극동지구 리틀 (7월·서울) ▲아시아선수권 (9월3일~14일·서울)

◇핸 드 볼

▲LA올림픽 남자예선 (미정) ▲LA올림픽 여자아시아예선 (미정) ▲LA올림픽3대륙 여자최종예선 (미정) ▲83년 국제 (2월·이집트) ▲제3회 국제 (2월·쿠웨이트) ▲제3회아시아선수권 (9월·서울) ▲제4회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 (10월·파리) ▲韓日여자실업교환 (2월·일본)

◇테 니 스

▲83년 페더레이션컵 세계여자선수권 (10월·스위스) ▲데이비스컵 동부지역 준준결승전 (3월4~6일·미정)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3월28~4월3일·홍콩) ▲아시아 아마선수권 (9월·서울)

◇배드민턴

▲3회 세계선수권 (5월·덴마크) ▲스웨덴오픈 (3월) ▲全英선수권 (3월) ▲일본오픈 (1월)

◇레 슬 링

▲83년 세계선수권 (9월22~10월1일·소련) ▲22회 메라컵 (2월16~19일·스웨덴) ▲슈퍼챔피언십 (3월4~5일·일본) ▲세계주니어선수권 (8월7~9일·미국)

▲아시아선수권 (시기미정·이란)

◇복 싱

▲인도네시아 대통령배 (1월) ▲킹스컵 (3월·태국) ▲마르코스대통령배 (4월·필리핀)

◇역 도

▲37회 세계선수권 (10월18~30일·폴란드) ▲관노니아 국제대회 (6월14~19일·헝가리) ▲9회 세계 주니어 선수권 (7월20~30일·이집트) ▲4회 아시아선수권 (시기미정·시리아) ▲18회 韓日친선 (6월) ▲13회 韓日친선 육체미 (7월예정) ▲19회 아시아 육체미선수권(9월·파키스탄) ▲37회미스터 유니버스선발 (11월·싱가포르)

◇유 도

▲13회 세계선수권 (9월·소련) ▲3회 세계청소년 (6월10~12일·푸에르토리코) ▲6회 아시아 선수권 (9월·미정)

◇궁 도

▲32회세계선수권 (10월11~14일·멕시코) ▲아시아초청(4월·홍콩)

◇사 이 클

▲83년 세계선수권 (8월·스위스) ▲LA 올림픽 프레 (7월·미국) ▲세계 주니어 선수권 (10월·뉴질랜드) ▲아시아 선수권 (12월·필리핀)

◇체 조

▲83년 세계선수권대회 (10월·헝가리) ▲세계주니어대회 (8월20~27일·일본) ▲이집트국제친선대회 (9월19~25일)

◇승 마

▲독세주니어종합선수권 (3월·호주) ▲국제대회 (1월·일본)

◇요 트

▲아시아리게타선수권 (10월·일본)

◇조 정

▲아시아선수권(8월·미정)▲동남아선수권 (5월·홍콩) ▲전일본선수권 (5월) ▲옥스퍼드컵 (8월·일본)

◇펜 싱

▲83년세계선수권 (7월·오스트리아) ▲세계청소년 (3월31~4월4일·헝가리) ▲오세아니아 선수권 (8월8~13일·홍콩) ▲대만국제개인선수권 (1월16~20일)

◇태 권 도

▲6회세계선수권(10월·덴마크)

◇볼 링

▲10회 세계선수권 (10월·베네수엘라)

◇사 격

▲32회 세계공기총 선수권 (5월·오스트리아) ▲83년세계플레이 선수권 (10월·캐나다)

◇연식정구

▲5회세계선수권 (8월·대만)

◇빙 상

▲83년 세계남자 선수권 (2월·노르웨이) ▲동여자 선수권 (2월·동독) ▲83년 세계피겨 선수권 (3월·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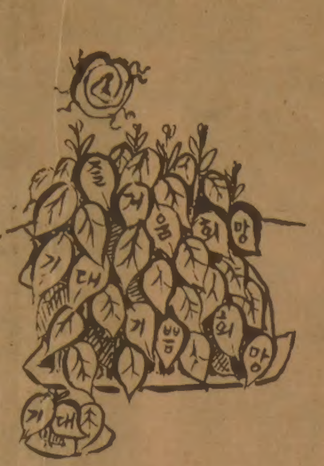
◇스 키

▲세계선수권 (1월·핀란드)

# '83 봄 여름 가을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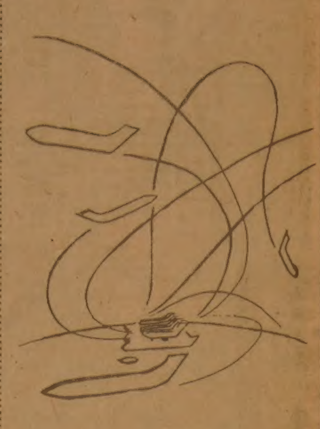
杜川 안 의 섭

◇새해에는 새종자 새씨앗을 뿌려봅시다. 보다개량되고 보다 질좋고 보다 우리풍토와 우리체질에 맞는 씨앗을….




◇보다 우리체질 우리풍토에 맞는 작물은 무섭게 자라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기대와 희망은 우리의 온강산을 뒤덮을겁니다.

◇이욱고 우리의 강산은 방방곡곡 황금의 물결이 춤울 출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보다많은 백성들이 보다 넓은 곳으로 나가 보다많은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보다나은 나라를 건설해봅시다.

## 女記者 칼럼

張 明 秀 <116>

# 나쁜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겨내는

작년 연말에 친구들에게 크리스머스 카드를 보내면서 나는 『온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이란 새해인사를 빠짐없이 써넣었었다. 물론 이 말속에 나의 기원이 담겨있긴 했지만, 내가 정말로 쓰고 싶었던 말은 『나쁜 일을 당하지 않는 한해가 되기를…』이란 말이었다.

해마다 새해인사를 쓰곤했지만 이런 느낌을 가진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새해인사에 「나쁜일」이란 단어를 넣는게 싫어서 나는 그냥 「公式的인 인사」를 쓸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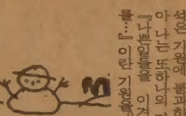
항상 좋은일만 있기를 빌었던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었다. 살아오면서 「좋지 않은일」을 꽤 많이 겪었으면서도 그 나쁜일들이 生의 한부분이란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새해가되면 한해의 어디쯤엔가 즐겁고 신나는일이 伏兵처럼 숨어있기를 꿈꾸었을뿐 나쁜일이 伏兵처럼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다.

나쁜일쪽에 눈을 돌리게된것은 내가 그만큼 철이 들었기 때문일까. 지난해만을 돌아본다해도 나의 주변에서 일어난 나쁜일은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다. 가까운 이들이 병들고, 세상을 떠나고,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事故를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있는 우리들」은 모두함께 철이 들었던것 같다. 「우리들의 나이」에서 당할수있는 나쁜 일이 그렇게 많다는것을 어제의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노력만 한다면 모든일을 이룰수 있을뿐 아니라 노력하지않고 얻는 좋은일도 얼마든지 있을거라고 믿었던 젊은날은 무서울것이 없는 날들이었다. 그러나이제 두려움없이 어떻게 生을 바라볼수있단 말인가.

나이들수록 늘어나는 인간의 두려움을 달래주는것은 모든 聖人들의 공통된 과제였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내일일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오늘일로 족하니라』라고 가르치셨던것을 생각해보게 된다. 불경을 읽고있는 한 선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더도 덜도 말고 나쁜일없는 한해가 되기를…』이라고 빌었던 나의 기원은 내일을 두려워하는 약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기원에 불과하다. 그 기원에 잇달아 나는 또하나의 기원을 띄우고 싶다. 『나쁜일들을 이겨내는 한해가 되기를…』이란 기원을.



지난해의 나쁜일들을 모두 삭힌다해도 우리는 새해에 닥쳐올 나쁜일들을 生의 一部로 다시 끌어안을수 밖에 없다.

나쁜일 좋은일을 함께 끌어안고 오늘 또오늘을 열심히 살아갈수밖에 없다. 『더도 덜도 말고 나쁜일없는 한해가 되기를. 나쁜일이 있다면 잘이겨 내는 한해가 되기를…』 나자신과 우리 모두와 나라를 향해서 빌어본다.

# '84 LA올림픽 史上최대의 잔치

## 巨大한 체육都市…준비順調

## 參觀인원 延5백만 넘을듯

◇LA 올림픽 마스코트 「샘독수리」

◇LA 올림픽 심벌마크인 「움직이는 별」

1984년 LA올림픽대회는 7월28일부터 8월12일까지 16일간 열린다. 이대회에는 세계 1백49개국에서선수 1만명을 비롯, 임원4천명 보도진 8천여명등 2만2천명이 참가하게된다.

또한 올림픽대회를 참관하기위해 매일 20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연인원 5백만명이 LA를 방문할것으로 LA올림픽조직위원회(LAOOC)는 추산하고있다.

LAOOC는 심벌마크로 「움직이는 삼색별」을 선정했다. 선수들의 힘찬 움직임을 나타내는 별의 푸른색 붉은색 흰색은 1·2·3등상을 상징하는데 세계각국 국기색깔의 공통점을 따온것이라고한다. 올림픽 마스코트로는 「샘 올림픽독수리」(Sam Olympic Eagle) 가선정됐다. 독수리는 미국의상징적 인새, 「샘」은 올림픽모토인 「바르게 높게 강하게」의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월트 디즈니社에서 제작했다.

LA올림픽대회 경기장 입장권은 83년2월부터 예약을 받게된다. LAOOC당국은 지정석 5백만장, 일반석 2백만장등 모두 7백만장을 인쇄할예정. 이중 50%이상은 남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관매할계획이다.

LA올림픽대회 총예산은 약5억달러. 순이익금은 2천만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돈은 미국청소년 체육진흥자금으로 쓰여진다.

올림픽대회 기간중 LA를 찾는 관광객들은 83년초부터 호텔등 숙소를 예약치않으면 큰불편을 겪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현재 LA카운티와 오린지카운티 관내에는 약14만3천개밖에 숙박시설이 없자, 올림픽대회 기간중 매일 20만명의 관광객가운데 50%가 숙소를 따로 마련해야할 형편이다. LAOOC는 이미 시내50여개 주요호텔의객실 2만개를 올림픽관계자들을 위해 따로 예약했기때문에 일반인들의 숙박시설은더욱 부족하게됐다. 예약된 호텔은 홀리데이인, 센추리플라자, 힐메리호텔, 하이아트호텔, 일본호텔, 보나벤처호텔, 마리오트호텔등 1급호텔. LAOOC는 84년초부터 민박관계를 검토할계획이다.

올림픽경기와함께 관심을 끌게되는것은 「올림픽 예술제」인 문화행사. 이예술제는 대회개막전 1개월전부터 시작, 약2개월간 계속된다. 이 예술제에는 런던로얄 오페라단을 초청하게되며 [illegible]이 전시되고 세계에서 이름난 16개예술단이 참가한다. 또 영화 음악 연극등 각종프로그램이 마스터 짜여지는데 소요예산만도 5천만달러에 이르고있다.

84년 LA올림픽 조직위원회는 61명으로구성된 이사회가 최고기관이며 그아래 실행기구인 22명의 집행위원회가 있다. 이집행위에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의 이사로 영입된 윌리엄·사이먼과 돈·밀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임원이었던 더글러스·로비와 줄리안·루스벨트등이있다.

그리고 시상식 개회식 폐회식 문화관계시상부 연락관계 연방정부 연락 재정 숙소 안전 의료 영양관리등 23개 위원회로 나누어진 「올림픽시민자문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는데 현재까지 약8명의 한국인이 중요포스트에 임명됐다.

피터·유베로스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능한 한국인사회의 참여를 권유하겠다」고 밝히면서 「LA지역 한인 교포사회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올림픽진행을 협조하는데 큰 몫을 할것으로 안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올림픽대회 운영을 맡게될 시민자원봉사자 1천여명은 83년1월중순부터 격주로 개최되는 「올림픽교실」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대회도상연습을하며 이교육은 84년6월까지 계속될계획이다.

84년 LA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많은관계자들은 대회기간(1984년7월28일~8월12일)중의 LA지역 스모그문제와 선수들의 안전관리, 교통체증 문제등을 걱정하고있다.

대회기간중 LA지역의 예년평균기온은 섭씨23도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스모그문제를 해소하는방법으로 아침에 경기를하고 낮동안은 옥외 경기를 피하며 하오와 저녁을 이용하는 시간표를 구상하고있다.

선수촌과 경기장간에는 경찰의 에스코트를받는 특별버스가 운행되나 6백만대의 차량이 혼잡을이루는데다 대회시 매일 60만명이상 외래관광객까지겹쳐 LA지역은 교통체증을 면치못할 전망이다.

선수단 안전보호의 책임은 과거 FBI에서 22년간 탁월한수사관 경력을지녔던 에드·베스트씨가 담당하게됐다. 그는 1953~55년까지 주한미해병대장교로서 복무한 적도 있는데 LA올림픽조직위에 발탁되기전에는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LA지역 FBI책임자로 명성을 날렸다.

그는 LA대회 경비책임을 맡고부터 「올림픽 안전기획위원회」를 창설했다. 이 기구에는 미국에서 3대경찰국으로 이름난 LA경찰국, LA카운티 셰리프국, 캘리포니아 고속순찰대를 비롯, FBI연방비밀경호대, 연방세관등 정부의 안전관계 기구를 총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에드·베스트씨는 「필요하면 州방위군과 예비군 그리고 연방군대의 협력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수들의 망명문제에 대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라면서도 「올림픽정신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있다.

올림픽촌으로 결정된 UCLA대학과 USC대학의 5개기숙사 건물에는 선수들의 숙식시설은 물론 의료시설 오락시설을 비롯, 쇼핑센터 우체국 은행 교회등 일반사회생활과 다름없게 분위기를 조성시킬 계획이다.

선수들의 급식은 가급적참가국 특성에 맞춰 영양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1일 3회식사와 간식으로 5천5백칼로리를 유지시키는 계획을 작성하고있다.

선수촌 식당운영원만 2천명이며, 대회기간중 우유가 12만5천갤런, 감자가 12만㎏, 요구르트가 1천8백35㎏, 그리고 [illegible]이 1백㎏이 필요한것으로보고있다.

84년 LA올림픽을 주관하게될 LA올림픽조직위 기관지 「움직이는 별」은 최근호에서 「LA에서는 한국인이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성장하고있다」고 소개했다.

미주에서 코리아타운까지 형성하고 있는 LA동포사회는 다른 어느지역보다 84년 LA올림픽에 가슴설레고있다.

LA는 전체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도시이다. 기후가 1년내내 온화하고 [illegible] 아시안게임에서 [illegible] LA동포들은 [illegible] 기대하고있다.


# 감 사 말 씀

지난 12월27일 거행된 함승훈·조미상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교포여러분께 우선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차고 연말연시에 공·사로 다망하실텐데도 불구하신 선후배 제현, 친구, 친척들의 성원 덕택으로 두 젊은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훌륭한 결혼생활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새해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1983년 1월
양가를 대표해서
함의현·조한금 드림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Scarborough Town House $59,900
3베드룸, 4 Appliance Good for starter.
◉Don Mill × Lawrence 방갈로 $129,000
3베드룸+1, $35,000 10¼% Good mortgage.
Shopping, 교통, 학교, 도서관 매우 편리함.
◉Eglinton × Jane 콘도미니움 $64,900
2베드룸+1 Swiming Pool, Tennis Court 있음.
5 Appliance.
◉Sheppard×Victoria Pk. 세미 디테잇치(좋은 위치).
4베드룸, 4 Appliance, $108,000
◉Markham × Finch 방갈로.
4베드룸+1 가격 $124,900
Lots of extra, Sauna, Fire-Place, Extra large lot.
◉Warden × Sheppard Town Home.
3베드룸, Appliance, Fire-Place, 가격: $84,900
좋은 위치, Financing $44,000 10¼%
◉Scarborough Malvern 가격: $92,000
4베드룸, 방갈로우, Appliance, Draperies.
Only one minute to bus stop.

★ Variety Store
(1) 주매상: $4,500/$6,500/$7,000/$11,000 / $14,000
(2) Tuck Shop(새로 오픈한)
주매상: $2,500짜리 두곳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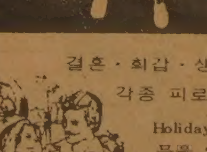
★ Shopping Mall
(1) Lottario Ticket Shop
연매상 백만불. 렌트: 월 $1,100. 가격: $235,000. $100,000 다운
(2) Key 센타.
연매상 십만불. 렌트: 월 $432. 가격: $105,000.
(3) Fish and Chip
주매상: $7,500~$8,000. 연 순수입 10만불. 가격: 29만 불
15만불 다운 요함.
(4) 고급 남자 양복점: 시내 중심가에 위치
연매상 15만불. 렌트: $1,950. 연 순수입 4만불. 가격: 6만불.

★ Coffee and Sandwich Shop
주매상: $4,000(5일간 운영) 시간: 7시~5시. 가격: $140, 000
렌트: $1,350(전기포함) 5년+5년+5년

★ Donut Shop
(1) 주매상: $2,200. 하루12시간 영. 일요일 닫음. 렌트: $600.
6년+5년 옵션. 연 순수입: $45,000. 가격: $110,000
(2) Donut Castle : Downtown 렌트: 2,700(내년 2월까지)
$3,240(5년), $3,888(5년), 주매상: $5,500
가격: $199,000 13만불 다운요함.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Holiday 기간동안은 점심시간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월~수 오후2시—새벽1시
목~일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홍콩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 6

가는사람 오는사람…

# 사라진 人傑 새로운 主役

82년의 人物浮沈

①곤살레스 (스페인수상)
②나까소네 (일본수상)
③유리·안드로포프 (소련서기장)
④마르케즈·가브리엘·가르시아 (노벨문학상수상자)
⑤미구엘·마드리드 (멕시코대통령)
⑥아민·제마옐 (레바논대통령)
⑦알바·미르달 (노벨평화상수상자)
⑧헬무트·콜 (서독수상)
⑨胡耀邦 (중공국가주석)

①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
②할리드 (사우디아라비아王)
③그레이스·켈리 (모나코왕비)
④루빈스타인 (바이얼리니스트)
⑤바시르·제마옐 (레바논대통령당선자)
⑥헨리·폰더 (배우)
⑦잉그리드·버그먼 (배우)
⑧자워스키 (워터게이트사건 기소검사)

## 「브」는 死亡때까지 權座 미련못버려

## 「안드로포프路線」 새해엔 드러날듯…日·西獨은 旗手교체

## 레바논대통령當選者 참변
### 팔레스타人 난민大虐殺의 비극
### 헐리우드출신 名優들 受難의해

82년에도 많은 역사의 주역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 등장했다. 권력을 쥐고 세상을 흔들던 權者든, 뭇 사람들의 사랑과 아낌을 받던 대중의 우상이든 인간에겐 生者必滅의 숙명이 예외없이 준엄함을 되새기게 해주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남긴 공백은 새 사람들이 등장해 메워지면서 여전히 세상은 어디론가 소용돌이치며 굴러간다.

소련을 18년 동안 통치한 레오니드·브레즈네프가 해바뀌기 두달을 남긴채 75세를 일기로 사망한 것은 금년에 일어난 빅뉴스중의 빅뉴스였다. 폴란드의 자유노조탄압과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세계사의 물굽이에 커다란 격랑을 일으켜 놓기도 한 그는 숨을 거두면서도 생전의 권력을 모조리 거머쥐고 죽었다. 그 악착스런 權者의 미련에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연민의 정을 품어야했다.

브레즈네프가 죽고나자 그의 種馬로 자란 前 KGB (소련비밀경찰) 의장 유리·안드로포프가 소련의 새 強者로 등장했다. 처철한 권력다툼이 없었던 것이 다소 의아스러우나 음모와 배신, 암살의 역사로 점철된 크렘린宮의 앞날이 조용할 것 같지만은 않다.

전쟁이나 평화나, 안드로포프의 당면 과제중 對美 핵군축회담의 成敗는 인류의 존망이걸린 중대사다. 그는 아프간의 늪에 빠진 소련의 궁지를 어떻게든 풀어야할 숙제를 안고 있다. 폴란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문제에 대처해가는 그의 一擧手一投足은 세계사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새해들어 그의 정책노선이 뚜렷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의 침공으로 PLO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西베이루트를 철수한후 레바논대통령이 된 바시르·제마옐이 그가 이끌던 팔랑헤黨의 당사를 찾아가 옛동지들에게 고별인사를 하던중 폭사했다. 바시르·제마옐의 나이는 불과 34세였으나 그는 기독교민병대세력을 기반으로 內憂外患에 찢긴 레바논에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고 질서를 회복해줄 인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가 죽자 팔레스타인난민에 대한 대학살극이 기독교민병대에 의해 자행됐다. 이 사건의 충격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팔랑헤黨의 정치지도자였고 바시르의형인 아민·제마옐이 새 대통령이 됐다.

38세의 아민·제마옐은 레바논內戰의 종식과 이스라엘·시리아등 外軍철수를 이룩해야할 벅찬 과업을 안고 있다. 레바논은 중동의 화약고자 이넓게는 세계의 화약고다. 과연 레바논은 어디로가는것일까.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며 사막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할리드 王이 69세로 죽고 그의 이복동생 파하드가 사우디의 새王이 된 것도 금년이다. 본시 마음이 온화하고 병약한 할리드는 권력보다는 매사냥을 더 즐겼다. 그의 재위중에도 政事는 사실상 지금의 王인 파하드 황태자가 처리했었다. 새 王이된 파하드도 先王 할리드와 같이 親美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슬람 형제국의 싸움인 이란―이라크戰과 이스라엘―아랍권의 대결 해소를 위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의 기소검사로 활약, 결국 닉슨을 대통령직에서 사임케만든 레온·자워스키가 77세로 사망, 닉슨에 앞서 세상을 떴다. 「대통령도 法律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데 공헌을 남겼다 하나 자워스키와, 그때문에 대통령을 그만두어야 했던 닉슨은 不俱戴天의 원수같은 人之常情을 품고 있었을지 모른다. 자워스키의 죽음으로 이들은 일단 같은 하늘밑에서 살지는 않게됐으나 앞서고 뒤서는 시간의 차이뿐 사람의 가는 길은 결국 같다는것을 깨닫게한다.

교과서왜곡으로 우리의 민족감정을 건드려 놓았던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에 스즈끼내각이 물러나고 나까소네가 새首相으로 등장했다. 그사람도 역시 일본사람임에 틀림이 없으니 과연 그의정책이 어떤 것이 될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가닥 경계심도 갖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對韓經協문제, 방위력증강 문제, 對美, 對蘇, 對중공문제를 처리해가는 그의 솜씨에 따라 한·일관계는 물론 극동과 세계의 기상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할리우드의 배우출신으로 지중해 연안의 小國 모나코의 왕비가 돼, 미모와 위엄을 한 몸에 지녔던 그레이스·켈리가 자신이 몰고가던 자동차 추락사고로 죽었다. 그때 나이 52살이었으나 妖精처럼 아름답던 한창때의 미모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레이스·켈리의 본시 태생은 美필라델피아에서 일하던 한 벽돌청부업자의 딸에 불과했다. 그녀의 일생은 짧았지만 童話처럼 아름다왔다.

섬세한 선율로 청중의 심금을 울리던 세기적인 피아니스트 루벤스타인, 배우 잉그리드·버그먼, 헨리·폰더등의 스타들도 세상사람들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듯 아쉬움을 남겨놓은채 금년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이밖에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렸던 멕시코의 새대통령으로 미구엘·마드리드가 당선되고, 서독에는 基民黨首 헬무트·콜이 집권, 親美노선을 강화했다. 쿠데타의 위협이 가시지 않는 스페인에는 곤잘레스 사회당 당수가 총선에서 승리, 사상 처음 스페인에 좌익정권이 들어섰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인물들의浮沈과함께 역사는 변천을 멈추지 않는다.

【崔相鎬기자】

## 새해에 거는 스타들의 소망

"팬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다시 頂上오르겠다
◇朴哲淳〈27·프로야구선수〉

82년의 프로야구 창단첫해에 22연승이라는 불멸기록을 세웠다. 83년 새해에도 그같은 기록이 달성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새해시즌엔 20승이 목표다. 내가 몸담은 OB베어스에 두번째 우승을 안겨주고 싶은것이 개인적인 욕망이다. 승리가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서 팬들의 사랑을 잃지않는 선수가 되겠다.

### 코치와 選手로 최선을
◇李仁〈30·前배구대표 주장〉

새해에 출범하는 現代自動車서비스팀의 코치겸 선수로 뛸생각을 하니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나이가 있는만큼 팬들께 선수로서 실망을 주지않을까 걱정스럽고 또 코치로서 팀을 잘 이끌어 갈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탈리아 클럽팀에서 열심히 뛰었으므로 어느정도 옛 기량을 보일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새記錄…세계에 挑戰
◇崔允喜〈15·수영선수〉

새해에는 고등학생이 돼요. 더욱 알차지고 좋은 기록을 내는게 저를 격려해주시는 여러분께 보답하는길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하지않고 열심히 훈련하겠어요. 코치(劉憲淸)선생님이 설정한 목표는 올림픽까지 배영 100m서 1분05초, 200m를 2분03초아래로 끊어내는것인데 올해안에 13초를 단축하려 보겠어요.

### 아시아頂上을 찾겠다
◇朴讚淑〈22·鮮京여자농구〉

뉴델리 아시안게임서 中共에 당한 패배를 꼭 설욕하겠다. 83년 7월에는 브라질에서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예선을 겸하고 있어 한국여자농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다. 이대회서 中共을 꺾고 아시아 정상을 되찾는 한편, 올림픽출전권도 한꺼번에 따내 한국 여자농구의 화려한 전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東南亞무대로 날고파
◇丁允姬〈29·탤런트〉

새해는 연기의 폭을 해외로 넓힐 생각이다. 말레이지아에서 열린 아시아영화제와 自由中國의 金馬장 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얼굴인지 타이페이의 한 영화사로부터 출연교섭을 받았으나 응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7편의 영화와 여러편의 TV드라머에 출연하느라 시간을 낼수 없었으나 올해는 동남아무대에서 뛰어볼 계획이다. 집안에서는 올해 꼭 결혼을 하라고 하지만 연기에 미련이 있어 힘들것 같다.

### 副業정리, 팬과가까이
◇혜은이〈29·가수〉

지난해 TV의 어린이프로 진행을 맡으면서 나 자신이 어린이가 된 기분이 들때가 많다. 새해에도 때묻지않은 어린이들속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알찬 연예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사실 지난해는 부업에손대느라 활동이 부진했다. 이제 부업을 정리했고


# 복합문화

우리 함께
올바르게 남을 이해합시다

새로운 운율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에 오는것과 같이
쉽지가 않다.

이는 시간과 노력에
필요하다.

많은 실패 뒤에
성공이 따르는법

조화를 이루며 사는것은
어렵지마는 않다.
음악도 배움으로서 가능한것
같이 이해도 마찬가지다.

자 함께 올바르게
남을 이해합시다.

Multiculturalism Canada Multiculturalisme Canada

Canada



# 캐나다생활의 동반자!
## 열이면 아홉이 한국일보를 구독하는 이유

첫째 : 교포신문으로서 유일한 일간지로써 진실을 가리우지 않고 치우침이 없는 기사를 가장 빠르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 다른 어느 교포신문과 비교할수 없는 방대한 조직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폭넓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교포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의 지혜를 풍부한 자료으로 상세하고 친숙하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1025 DUPONT ST.
TORONTO ONT.
☎ : (416)533 2361

# 生死岐路넘은 어느 早産兒

# 勝利의 새해맞이

밝아오는 癸亥의 태양처럼 신생아의 생명이 솟아올랐다. 다른 아기들보다 10주나 서둘러 세상에 나온 이 사내아기는 몸무게가 정상아의 3분의1밖에 안되는 生存의 갈림길에서 벗어나 생후57일만인 새해아침 생명의 장엄한 승리를 확인했다.

## 70일빨리出産…체중1.2kg

## 인큐베이터서 57일간 孤鬪

◇丈夫로 키울 꿈에 젖어 어머니 安씨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들여다 보면서 훤칠한 장부로 키울 꿈에 젖어있다.

생사를 점칠 수 없어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지만 가족과 병원측의 끈질긴 노력에 힘입어 인큐베이터속의 피덩이면서도 고통과 시련을 참고 이겨냈다. 암울했던 82년을 겨우 보낸 설날아침의 이 남본는 생명의 존엄성을 새삼 일깨워주었고 유전자공학이나 시험관아기등으로 훼손돼가는 생명에의 외경을 되살리면서 올해의 햇살을 한층 밝고 희망차게 해주는 경사였다.

서울九老區 新道林洞 강남성심병원 조산아실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安明淑씨(31·여·서울冠岳區新林9洞)의 2남은 우유도 받지못하던 고비를 넘기고 10명중1명미만이라는 생존통계를 허물어버렸다. 스스로 서너바퀴씩 도는등 인간으로서의운동도하고있다.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은 지난해 11월6일 하오. 분만예정일을 10주나 남겨놓았을때 어머니 安씨는 전날 아침부터 통증을 느껴 서울러입원, 24시간의 진통끝에 해산을했다. 1남1녀의 어머니인 安씨는 조산으로인한 불안감에 정신을 차린직후 아기의 상태를 물었으나 바라던 두번째 아들은 생사가 불확실했다.

몸무게는 정상 신생아의 3분의1수준인 1.21kg이었고 키도 46cm(정상아는 50~55cm)에 불과했으며 32주만돼도 괜찮은것을 30주밖에되지 않아 『얘가 살수 있을까』하는 불안은 몸놀에이는 듯했다. 해마다 8만여명의 조산아가 태어나지만 체중 1.21kg이하는 1.2%밖에안되며 살아날 확률은 10%이하라는 설명에 더욱 힘을 잃었다.

미숙아는이내온도32도·습도60%의 태내와 똑같은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이날부터 아기의 생명을 살리려는부모와 병원측의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됐다. 이 아기의 경우에는 체중증감이 다른 미숙아들보다 심해 더욱 애를 태웠다. 이같은 현상은 3주나 계속됐다.

처음엔 우유를 빨지못해 코를통해 호스로 위에 연결, 우유를 공급했으며 그나마 정상아의 절반수준인 10cc정도를 먹었다. 조산아실 수간호원 李賢淑양(26)등 간호원 11명은 30분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해야했으며 소아과장 柳基讚박사(42)도 이 드문 케이스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생사의 고비라는 사흘은탈없이 지나갔으나 몸무게는다시 줄어들어 2주째 되던날에는 13%나 내려간 1.05kg이 돼버렸고 면역에 약한것도 문제여서 운명은 하늘에 맡겨지다시피 됐다.

간호원팀이 환성을 지른것은 23일째인 11월28일 그이틀동안 몸무게가 1.17kg을 맴돌더니 30g이 부쩍 늘어 1.2kg이 됐다.

42일째인 12월17일에는 1.5kg으로 불어났고 그후부터 하루평균 20~30g씩 늘어나 12월31일에는 2kg이돼 서너바퀴씩 돌면서 혼자운동도하게됐다. 우유도 한차례 60~70cc씩 기운차게 빨아먹고있다.

수간호원 李양에 의하면 아기가 살아난것은 병원팀의 노력은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저녁으로 찾아와 신생아실의 「실장」으로 통하는 아기아빠의 정성덕이다.

이 미숙아가 지금까지 극복해온 장애를 나열해보면 생명의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수있다. 폐의미숙으로 인한호흡장애증후군, 간의 미숙으로 인한 황달,저혈당증과 감염,체온등 외부환경에의 적응능력 저하등이며 이같은 악조건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욱 대견스럽다.

아기는 앞으로 2.3~2.5kg이 되면 퇴원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장에 따르는 문제는 아무것도없다. 어머니 安씨는 산모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지못했던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장부로 키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金宗來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 "남편은 노벨賞 탈거예요"

## 美 첨단科學者 내조하는 한국인 아내

### 왜소병治療劑합성主役 블렌博士의 부인 李順那씨

### 집안곳곳에 東洋美…"올핸 가족과祖國 돌아볼생각"

【로스앤젤레스=朴興津기자】 한국여인의 손길이 미국의 첨단과학도의 두뇌를 내조하고 있다. 왜소병을 치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GRF의 합성에 성공한 미국 솔크(SALK)생물학연구협회 연구팀의 핵심멤버인 피터·블렌박사(40)의 아내는 한국인 李順那씨(34).

李씨는 弘益대미대를 다니다 지난71년 美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NCSP대학으로유학을왔다. 남편 블렌박사를만난것은 이 대학의 외국인학생으로 구성된 국제클럽에서였다. 블렌씨는 스위스인으로 하교였 솔크협회연구원이었다.

스위스 베른대학 재학중 일본을 3개월간 여행한일이 있는 블렌씨는 이미 동양의 매력에 취해있던 때였고 李씨는 한껏 동양적 매력을 갖춘 미모의 처녀로 누가 먼저라고할것도없이 둘사이는 가까와졌고 1년후엔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두사람의 결혼생활은 고지식하게 몰두해들어가는 전형적인 유럽인과 부드럽고 다감한 동양여인의 하머니였다. 블렌씨는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정확하며 집착이 강하다. 융통성이 없어 답답해보일때도 있지만 李씨는 남을 존중할줄 알고 다정한 구석이 많아 단점을 커버한다며 강한 애정을 감추지 않는다.

샌디에이고근교 엔시니타스에있는 이들부부의 집은 李씨의 그림으로 뒤덮여 화랑에 들어선느낌이지만 블렌씨의 동양 취미가 깊어 골동품도 무척 많이 수집해놓았다. 키 이조가구 떡살 중국 칠보 도자기 판화등이 李씨의 그림과 함께 어울려 풍기는 분위기는 이집 주인이 동양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사실 이가정의 주인노릇은 아내李씨가 맡을 때가 더많다. 남편이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모든 일을 떠맡는 李씨의 헌신적인 내조때문에 언제부턴가 그렇게된것이지만 집수리까지 모두 맡아서 처리하는아내에게 블렌씨는 오직 감사할 뿐이다.

블렌씨의 동양에대한 깊은 이해로 자녀교육도 철저한 한국식이다. 그동안 다니엘(10) 토머스(1) 등 두아들을 두었지만 아이들은 부모에대한 존경과 순종을 배우고 동양적예의를 익히도록 키우고있다. 그래선지 다른 미국아이들과 달리 흔해빠진 전자놀이기구하나 없어도 불평을 하지않는등 다른모습을 보이고있다고한다.

새해를 맞는 李씨에게 꼭 이루어질것같은 두가지의 꿈이있다. 하나는 남편이 노벨상을 타리라는 확신에 가까운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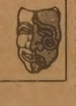
또 하나는 오랫동안 보지못한 고국의 모습을 온가족이 꼭 찾아보겠다는것이다.

◇과학자를 內助하는 한국人아내 첨단과학의 두뇌인 블렌씨를 내조하는 李씨의 손길은 남편을 동양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 人間의 소리

# 각계각층찾아 2백60회뛴「탈」

## 메마른社會 적시는 情의 交感역할



『사막같이 된 세상에서 인간은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作家의 경귀를 구태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거칠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가난속에 찌들어왔고 外侵에 멍들어 왔으며 민족이 자각하기 시작한 각성기에서는 「경제성장」에 모든것을 희생 당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우리는 지금 남보다 눈치가 재빨라야 하고 타인보다 빨리 뛰어야 하며 남못지않게 강한체해야 생존이 가능한 「메마른 사회」에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미워하고 질시하고 헐뜯으며 자기만 기어올라가려는 利己의 세계에서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나 「모릅니다」가 계속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表面의 풍경일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선진외국사회와 견주어 보면 우리는 훨씬 情이넘치는 사회에서 아직은 사는 행운아들입니다. 다만 그情이 위아래로, 옆으로 강물처럼 흐르지 않아 탈인 것입니다.

막혀있는것은 「대화」와 「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푸는 「인간의 소리」들이 자기울타리안에서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생긴 악순환의 결과일 것입니다. 本欄은 오늘로써 「인간의 소리」를 2백60회째 연재 합니다. 청소부에서 長官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거리의 유랑악사에서 부터 대재벌의 총수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사람을 소개 해 왔읍니다. 소리와 소리가 마주쳐 共鳴하듯 「인간의 소리」들이 서로 부딪쳐 共感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시대의 소용돌이안에 있으며 많은것을 개선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제도가 改善을 가져다주지는 못할것입니다. 인간스스로가 自我를 찾는 일이 모든일에 우선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가치를 아는일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영원히 수호해야한 가치는 결국 인간 그자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本欄은 「인간의 목소리」를 매일같이 1건씩찾아가면서 인생의 신선함과 기쁨, 슬픔을포용하고 해학과 사랑으로 승화된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읍니다. 때로는 채찍과 가시를쉬는것도 주저하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한 시대와 그속에서 살아숨쉬는 사람들의 소망과 고통, 꿈과 좌절을을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과 체취와 육성으로서 감히 기록해보려 합니다.

자칫 경직되기쉬운 사회분위기와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좋은소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읍니다.

【서울종로구중학동14 ☎720-1080·吳隣煥사회부장】

## 光州 상가에불 5千萬원 피해

【光州】31일새벽2시40분께 번화가인 전남光州東區光山洞 귀거래다방 원삼학식당부근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동백다방, 세탁소등 점포 5칸(1백평)을 태우고 1시간30분만에 꺼졌다. 피해액은 5천만원. 【聯合】

## 檢察 각종소환장 봉합엽서 사용

검찰의 각종소환장이 새해부터 종래의 일반엽서에서 봉합엽서로 바뀐다.

검찰이 피의자·참고인·피고소인및 고소인등에게보내는 소환장(출석요구서)을 봉합엽서로 바꾸기로 한것은 일반엽서는 내용이 노출됨으로써▲출석요구서에 적혀있는 죄명이 강간·혼인빙자간음·강제추행·절도등일 경우 당사자의 명예및 사생활을침해할 우려가있으며▲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의경우는 관리인이나 이웃에 관련사실이 알려져 피해를 보는사례가많고▲가족들사이에서도 본인만의비밀을 지켜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제도를 우선 서울지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 火災 琴湖호텔社長 구속

### 영선과장도… 종업원1명立件

【大邱】琴湖호텔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31일 호텔사장 金英基씨(46)와 영선과장 張萬金씨(31)를 소방법위반및 업무상 과실치사상등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趙鳳煥씨(25)를 같은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 【聯合】

## 嶺南大學 총장 趙敬熙씨 辭表

【大邱】趙敬熙영남대총장이 31일 일신상의 이유로 재단이사회에 사표를 냈다.

趙총장은 80년6월16일 총장으로 취임,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놓고 있었다.

영남대는 지난1월 실시한 문교부특별감사에서 신입생 부정입학등 학사부정이 드러나 책임문제가 논의되어 왔었다. 【聯合】

## 전농림부장관 愼重穆씨

전농림부장관愼重穆씨(사진)가 31일하오1시30분 서울大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유족으로는 미망인 鄭英姬여사(69)와 2남3녀가 있다. 발인은 4일상오9시 서울大병원, 장지는 경남居昌郡南上面선영. 연락처 (7601)2629

## 新正連休맞아 서울역·터미널등

# 歸省인파 50여만

31일 하룻동안 서울을 빠져나간 귀성인파는 50여만명에 달했다.

이날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 종점등에는 정성어린 선물꾸러미를든 귀성객의 모습이 많이보였다.

예년보다는 다소 적은인파가 몰렸으나 미리 표를예매했기때문에 큰 혼잡은 없었다.

이날 서울역과 용산역에는 종무식을 끝낸 직장인들이몰려 이날하룻동안 9만[illegible]이 빠져나갔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도이날 하루14만명의 귀성객이 몰렸으나크게 붐비지는 않았다.

터미널에몰린 승객들은 대부분 커다란 가방에 가족동반의 즐거운 모습이었는데 간혹 배낭을 짊어진 등산객들의 모습이 보이기도했다.

또 서울九老區加里峰洞 한국수출산업공단의 3백56개 입주업체는 각각 전세버스를 마련, 귀향길에 나선 종업원 1만8천5백명을 수송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튼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 양 장 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광고문의 533-2361

##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 타자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운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육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육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매니저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 - 오후6시
금 : 오전8시 - 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 구 인

주방헬퍼 구함(무경험자 관계없음)
직접 내방원함. 25 The West Mall
(Sherway Garden Mall) Golden Bird B.B.Q. Chicken

Indoor골프장에서
파타임으로 일할 여자분 구함.(학생환영)
전화: 298-3584, 638-4658

출퇴근 하시면서 3살 아이 봐주실분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6544 Mrs. 리

풀타임 웨이트레스 급히 구함.
전화 : 757-6334

도나스 가게에서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밤일 하실분 구함.(키프링 & 렉스데일)
전화 : 743-3822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영주권 가지신 분으로 입주하여 애기봐주시며
가족같이 지내실분
전화 : 271-1482(낮), 274-5685(저녁)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합니다.
전화: 669-6438

점심시간 Dish Washer구함.
오전 11시30분~오후 2시30분. 젊은부인 환영.
영어 못해도 무방함. 421-6016, 421-2258

시외 그로서리가게 메니저 구함.
Barrie 근처.
전화: 1-705-458-4326

카운터 헬퍼구함. 영어 잘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바쁜 점심시간을 잘해내야 함.
전화 : 449-2012(7-10 pm) Mr./Mrs. Goomar

남자 헬퍼 구함
전화 : 923-1206 Mr. 김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유경험 Cashi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인쇄관계
잉크 배합사 구함. 우대하겠음.
전화: (B)247-8870, (R)242-4319 Mr. 김

식당(32좌석) 누구든지 맡아서 운영하실분.
렌트: 월 $350. ◉527 Evans Ave.
전화: 823-5135(R) 691-6768(B) Mr. 김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칭(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외롭고 쓸쓸한 남자(담배 안핌) 결혼대상자로 토론토나 한국에 있는 30~40대 한국미혼여성을 찾습니다.
전화 : 653-3105

## 한국기관·해외지사

| | |
|---|---|
| 총영사관 | 598-4608 |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 외환은행 | 364-2890 |
| 외환은행 Bloor지점 | 533-8593 |
| 한일은행 | 865-0456 |
| 조흥은행 | 363-3448 |
| KAL | 862-8250 |
| 금호실업 | 224-2491 |

## 교 민 단 체

| | |
|---|---|
| 한인회 | 755-9288 |
| 노년회 | 755-8079 |
| 실업인협회 | 533-7923 |
| Y.M.C.A. | 536-1166 |
| 코리아타운번영회 | 532-2727 |
| 동우회 | 261-2917 |
| 호남향우회 | 651-8835 |
| 캐나다체육회 | 248-8846 |
| 한인신용조합 | 533-9387 |
| 천주교신용조합 | 363-0097 |
| 한인태권도협회 | 630-3095 |
| 상공인협회 | 421-9144 |
|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 533-2361 |
| '88 올림픽후원회 | 623-3674 |
| 충공문화협회 | 444-3658 |

##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 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핀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동불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매매(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242-2630 Mr. Pak(밤10시30분 이후)

스카보로에 잘 꾸며진 일본음식점 매매.
한국음식점에도 잘 어울림
전화 : 755-3010(3pm-5pm) Fumi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107,000 Net plus. 년매상임. 11 스토아. 새로운 플라자 하이웨이가 만나는 지점이고 고층아파트 들어서고 매우 바쁜 거리임.
아스킹: 1,200,000. 25% 다운
Doris Burda 763-5555
R. Cholken Co., Ltd.

나나아가라폭포 근방의 개조된 호텔에 투자하실분.
파드너 쉽 가능.
최고의 투자임.
전화: 1-416-735-9930 John Psutka
주소: 30½ Niagara St. Welland L3C 4Z5

가게달린 건물 매매
◉2층에 살림집(1200 sq/ft)
◉가게(1200 sq/ft) ◉지하실(1200 sq/ft)
◉가게리스는 금년 9월에 끝남.
◉현주매상 $4,000이나 더 Sale을 많이 올릴 가능성있는 가게임. 전화: 243-0233 Mr. 김

Montreal Trust Company Realtor.
플라자내에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는 투자가를 찾읍니다.
다운페이: $250,000이상.
딴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읍니다.
당신에 스페샬 리스트 Dave Lal
전화: 275-5555

**5일에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533-2361**

##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1 Bed Rm. 아파트렌트(서브렛)
Don Mills 지역. 월 $311.00
전화 : 447-1785

방세 놓습니다. ◉여자분에 한함.
적당한 가격.
전화: 481-4330(저녁)

Office space for rent
1500 Sq.Ft. 1736 Queen St. W. 불에 타지 않는
안전창고 100 Sq.Ft. 전화 : 960-1888

방 세놓음. 조용한 가정. 덴포스와 돈랜드지하철서 도보로 5분거리. 교통편리. 화장실·취사시설 공유. 1주당 $35.00
전화 : (R)466-2455, (B)823-9040 ext. 2165 Mrs. 조

##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켄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연락처 : (416)461-3363(H), 463-7423(B) 송영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Century21 (Alpaca Realty)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새해에도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정성을 다 하겠읍니다.

KAL 大韓航空

로스앤젤리스(213) 484-1900·로스엔젤리스공항(213) 646-4866·뉴욕(212) 371-4820·J.F. 케네디공항(212) 632-8730·호놀루루(808) 923-7302/6
시카고(312) 558-9300·샌프란시스코 (415) 956-6373·와싱톤(202) 785-3644·필라델피아(215) 665-9080·아틀란타(404)522-7461
달라스(214) 744-5981·앵커리지(907) 243-3329·토론토(416) 862-8250·뱅쿠버(604) 689-8431, (800) 663-9921
TOLL FREE SERVICE : 캘리포니아(800) 252-0128,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서부지역(800) 421-8200·뉴욕을 제외한 동부 및 중부지역(800) 223-1155